

08

August 2026
vol. 306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For Weddings





With Love, Since 1837 **TIFFANY & CO.**

Tiffany.kr | ©2026 T&CO, Jean Schlumberger by Tiffany & Co.™



Sixteen Stone by Tiffany
사랑, 시대를 초월한 힘

Contents

AUGUST 2026 / ISSUE.306

- 06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08_SOFT LUSTRE** 빛과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광택과 컬러를 품은 자개 주얼리.
- 09_SELECTION**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줄 브라이덜 에센셜 아이템과 신랑을 위한 웨딩 에센셜 리스트.
- 11_TIME IN STEEL** 높은 내구성, 절제된 광택, 스틸 워치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다.
- 12_소재는 어떻게 럭셔리가 되는가** 세계 럭셔리 패션 시장에서 기준점이 된 이탈리아 하이엔드 원단의 현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밀라노 우니카(Milano Unica).
- 14_저택의 시간을 걷다** 밀라노의 역사적 저택을 걷는 일은 그곳에 깃든 삶과 예술, 시간을 만나는 여정이며, 살아 있는 기억으로 남는다.
- 15_NOTES OF AUGUST** 청량한 시트러스와 섬세한 플로럴, 싱그러운 그린 노트와 깊이 있는 우디 향. 여름의 감각을 담은 프레아그런스.
- 16_SPIRIT OF EXPLORATION** 바세론 콘스탄틴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은 오버시즈 컬렉션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 18_FASCINATING EGYPT** 문학, 자연, 쿠티르 같은 서정적인 테마를 통해 감동을 선사해 온 반클리프 아펠의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매혹적인 이집트(Fascinating Egypt)'.
- 20_THE ESSENCE OF BEING** 부쉐론은 가장 근원적인 존재, 인간에 주목해 'Human Being'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요.
stylechosun.co.kr



바세론 콘스탄틴은 2026년 새로운 오버시즈(Overseas) 타임피스로 대륙과 타임존을 넘나들며 정밀한 엔지니어링과 미지의 지평 사이 조화를 구현한다. 각각의 다이얼 컬러는 동서남북을 나타내며, 끝부분이 오렌지 컬러인 듀얼 타임 핸드가 특징. 인하우스 칼리버 5110 DT/3으로 구동한다. 문의 1877-4306



- 22_THE LEGACY OF COLOR** 프랑스 망통의 유서 깊은 빌라에서 선보인 피아제의 '컬러 오브 엑스트라레간자(Colours of Extraleganza)' 하이 주얼리 컬렉션.
- 24_THE ERA OF ELEGANT MODERNITY** 〈포멜라토, 혁신적인 주얼리 메종〉의 오프닝을 기념하는 화려한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포멜라토를 재조명하게 했다.
- 26_THE LEGENDARY BIRD** '레전더리 버드: 사파이어 에디션'에는 티파니앤코만의 대담한 상상력과 섬세한 기술력이 깃들어 있다.
- 27_NEW JEWELRY CHAPTER** 푸투라서울에서 열린 반클리프 아펠 후원, 레플 주얼리 스쿨 서울 캠퍼스는 한국 대중에게 주얼리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여정이었다.
- 28_GET THE LIST** 가장 뜨거운 계절의 한가운 데에서 다같이 선명하게 빛나는 철나.
- 30_팔라초의 기억을 잇는 현대의 럭셔리** 도심의 분주함은 한 겹 멀어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곳,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가 선사하는 작은 마법의 시작이다.
- 32_DEARLY BELOVED** 셀렌, 약속, 아름다움. 신부를 위해 아껴둔 단어가 꽃피는 순간.
- 42_ELEGANCE IN EASE** 편안함은 물론 스타일까지 챙겨주는 데일리 슬라이드.
- 43_NATURAL BREEZE** 식물 섬유와 구조와 결로 한층 활기차고 시원한 분위기를 풍기는 스트로 벵.
- 44_LASTING ICONS** 뷰티에도 영원히 스테디 셀러가 존재한다. 수년간 사랑받으며 세대를 거듭해온 스킨케어 중 단 몇 가지만 엄선했다.
- 45_THE NEW RITUAL** 피부 고민에 맞춘 디바 이스가 집에서든 전문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해, 새로운 뷰티 루틴을 제안한다.
- 46_EDITOR'S PICK** 편집부 에디터들이 엄선한 이달의 뷰티 리스트.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Elegant Modernity

오메가의 여성 워치 컬렉션인 컨스텔레이션 (Constellation) 컬렉션은 1982년부터 이어져온 시그니처 '맨해튼(Manhattan)' 디자인에 케이스 양 끝의 클레(claws), 모노랭(mono-rang), 브레이슬릿, 그리고 하프문(half-moon) 패시 등 아이코닉한 디테일을 통해 우아함, 개성, 그리고 오메가 고유의 타임리스한 스타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오메가는 이 아이코닉한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이며 또 한번 여성 워치의 세계를 확장해나간다. 총 12개의 모델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헤리티지 디자인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소재와 컬러, 다이얼 텍스처의 정교한 변주를 주어 더욱 현대적인 우아함을 구현했다. 25mm부터 29mm 모델까지 더 다채롭고 풍부한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3467-8632



Time Revealed

바쉐론 콘스탄틴이 선보인 트레디셔널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는 42mm 라운드형 케이스와 슬림한 베젤, 2개의 구획으로 나뉜 독창적인 오픈워크 다이얼이 특징이다. 다이얼 상단부에는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로 마감한 18K 골드 플레이트와 방사형 패턴의 수공 기요세 장식을 더했으며, 하단부에는 샌드 블라스트 및 NAC 갈바닉 코팅 처리한 무브먼트 메인 플레이트가 그대로 드러난다. 월과 일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와 인그레이빙 및 잉크 처리한 레일웨이 마트 트랙,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가 조화를 이루며 다이얼의 입체적 구조를 완성한다. 칼리버 3610 QP를 장착해 최대 70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다이얼 12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통해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77-4306



The Iconic Secret

자연과 예술, 건축에서의 조화와 균형, 질서 등을 상징하는 보편적 언어로 존재해온 기하학적 모티브. 이러한 상징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탄생한 포멜라토 이코니카 컬렉션에서 신제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챕터로 나아간다. '더 컬렉션'이라 명명한 이번 제품은 작은 원형 펜던트에 체인을 매치한 것이 특징.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추가해 우아함과 반짝임을 선사한다. 모던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포멜라토의 탄생지인 밀라노의 디자인 감성과 자연스럽고 눈부신 포멜라토만의 독보적 개성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030-8321-0441



Sculpted Desire

매종의 장인 정신과 오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한 부쉐론 세병 보행 컬렉션은 조각 작품과도 같다. 1968년 탄생한 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며 오늘날까지 매종을 대표하는 아이코닉로 자리매김해왔다.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드롭 모티브에 진귀한 스톤을 파베 세팅하고, 뱀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골드 표면을 섬세하게 표현해 유려하게 완성한 라인. 그중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세병 보행 화이트 골드 투아 에 무아 링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세병 보행 화이트 골드 스몰 링은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를 강조하며 다양한 스타일에 개성 있는 포인트를 준다. 문의 080-822-0250

(위부터 차례대로) 화이트와 개얼 컬러의 패턴 스트라이프를 더한 레진 소재의 포에버 펜디 브레이슬릿. 간결한 형태와 대담한 볼륨이 조화를 이룬다. 가격 미정 **펜디**. 문의 02-514-0652. 메두사 모티브와 볼드한 체인이 어우러진 뱀글. 조형적인 실루엣이 손목에 감칠한 인상을 불러온다. 1백78만원 **베르사체**. 문의 02-3479-1294. 손 끝세 스타일의 LV 스크립트 시그니처를 오픈 컷 형태로 구현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에르메스의 H 시그니처를 에나멜과 골드 톤 메탈로 구현한 뱀글. 기하학적인 패턴과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신정임**

The Big Curve

단 하나만으로도 선명한 존재감을 완성하는 브레이슬릿.



롤스로이스, 1백 대의 나이팅게일, 1백 가지 서사

'고객의 기억과 삶의 서사를 어떻게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구현할 것인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순간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과정에 가까워진 롤스로이스의 비스포크. 이제는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는 개인화가 아니라 고객과 브랜드, 디자이너와 장인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코크리에이션의 정수를 추구한다. 지난해 두바이, 뉴욕, 상하이에 이어 서울에 문을 연 롤스로이스모터가 프라이빗 오퍼스 서울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고객의 삶과 경험을 듣고 이를 색상, 소재, 형태로는 디자인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롤스로이스가 제안하는 새로운 럭셔리 경험이다. 이 공간에서 지난 7월 말 열린 '롤스로이스 디자인 토크'에 참석한 롤스로이스모터가 글로벌 디자인 총괄 도마고 두케(Domagoj Dukec)는 롤스로이스가 고객에게 영감을 주는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은 코치빌드 컬렉션 모델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1백 대 한정으로 제작되는 이 모델은 단순한 희소성이 아니라 고객과 브랜드가 함께 완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스포크를 보여준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듯, 각 차량은 고객의 삶과 경험에 따라 고유한 서사를 갖추게 된다. 2028년 고객에게 인도될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단지 1백 대의 자동차가 아닌, 1백 명의 고객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창립자 헨리 로이스의 코트다쥐르 별장 인근 디자이너 하우스 '르 로시뇰 (Le Rossignol, 나이팅게일)'에서 이름을 따왔다. 1920년대 롤스로이스의 고숙 실험 모델 'EX'가 보여준 비전과 디자인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2인승 오픈톱 모델로, 긴 차체와 절제된 비율, 요트를 연상시키는 여유로운 실루엣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헨리 로이스가 추구했던 완벽한 엔지니어링과 '조용히 떠나는 듯한' 이동 경험을 계승한다. 롤스로이스가 오랜 시간 보여준 와프터빌리티(waftability), 즉 힘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이동하는 감각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럭서리의 본질을 보여준다. 글 **고성연**



Luminous Grace

샤넬 N°5 파인 주얼러는 브랜드를 오랫동안 상징해온 N°5 향수를 주얼리로 재해석한 컬렉션이다. 매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주되며 고유한 상징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드롭 디자인의 N°5 이어링은 구조적인 숫자 5 모티브를 따라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해 청량한 여름 스타일과 조화를 이룬다. 이어링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같은 컬렉션의 네크라스와 링을 매치하면 우아한 분위기를 한층 배가할 수 있다.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구조적인 실루엣이 빛아낸 조화를 통해 N°5 컬렉션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경험해보길. 문의 080-805-9628



Dream Watch

지난 7월 15일 1백89년 역사의 하이 주얼러 티파니앤코 (Tiffany & Co.)가 하우스의 상징적인 식스틴 스톤 (Sixteen Stone) 컬렉션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한 '식스틴 스톤 마더 오브 펄 루비 워치(Sixteen Stone Mother-of-Pearl Ruby Watch)'를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티파니앤코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잔 슬럼버제 (Jean Schlumberger)가 1959년 처음 선보인 식스틴 스톤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받았다. 워치 다이얼은 중앙 머더오브펄 디스크와 이를 감싸는 회전 링을 중심으로 12개의 루비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18K 옐로 골드 크로스 스틱치 모티브로 장식했다. 착용자의 손목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회전하는 링은 잔 슬럼버제 디자인 특유의 역동성과 생동감을 표현하는 일련의 고정밀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로 구현하는 이 특별한 워치는 매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1670-1837

Soft Lustre

자연이 빚어낸 고아한 아름다움을 담았다. 빛과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광택과 컬러를 품은 자개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쇼파드 해피 하트 뱅글** 자개 하트 모티브 중앙에 움직이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더해,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118-6085 **다올 파인주얼리 로즈 드 방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벨 모티브와 금직한 원형 자개가 조화를 이루며, 가장자리를 골드 비즈로 마감해 볼드한 실루엣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키린 브띠 울루 솔리드 링**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롱박 모양의 자개 소재 울루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장식했다. 4백58만원. 문의 02-3110-5189 **불가리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부채 모티브에 자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미니 펜던트로, 한국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다. 2백64만원. 문의 02-6105-2120 **포멜라토 누도 이어링** 앞면에는 투명한 화이트 토파즈를, 뒷면에는 자개를 세팅해 두 소재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빛을 전한다. 하우스의 세공 기법인 클레시드라 컷을 적용해 광채를 극대화했으며, 그 위를 다이아몬드로 수놓았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반클리프 아펠 투 버터플라이 펜던트**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자개로 날갯짓하는 나비의 형상을 섬세하게 구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다미아니 다사이드 이어링** 오픈워크로 완성한 2개의 핑크 골드 원형 모티브가 다이아몬드와 둥근 자개와 만나 연인 사이의 깊은 유대를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에디션 **김하얀**



15인치 노트북 수납이 가능하며 아이코닉한 리브 패턴이 돋보이는 19 디그리 알루미늄 콤팩트 4휠 브리프 캐리어. 44×40.5×22.5cm, 1백90만원 **투미**.



밀 이삭 모티브를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표현한 에피 드 블레 티아라 가격 미정 **쇼메**.



섬세한 플라워 자수와 시퀸 디테일이 돋보이는 드메인 백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플라워 모티브와 은은한 디올 오블리크 패턴을 담은 실크 트월 스카프 2백65만원 **디올**.



신부의 부케를 다채로운 크리스털로 구현한 오브제 8백만원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티아라와 컬러풀한 레더 부케를 든 비비엔 브라이드 4백43만원 **루이 비통**.



와이드한 렌즈와 슬림한 메탈 템플이 조화를 이루는 선글라스 78만원 **로에베**.



팬시 컷 다이아몬드와 9개의 에메랄드를 세팅한 Byzantine 네크리스 가격 미정 **포멜라토**.



자크뤼스와 협업해 아이코닉한 옐로 라벨을 새롭게 해석한 라 그랑 덤 2018 750ml 가격 미정 **보브 클리코**.



모자 공방 메종 마쉴의 베일에 플라워 공방 르마리에가 산통과 실크 폰지로 수작업한 개멜리아 모티브로 장식한 헤드피스 가격 미정 **샤넬**.

for her Selection

웨딩드레스와 워치 & 주얼리, 허니문을 위한 러기지까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줄 브라이덜 에센셜 아이템.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TAE

투미 02-539-8160 **로에베** 02-3479-1785 **보브 클리코** 02-2188-5100 **포멜라토** 02-3143-9486 **샤넬** 080-805-9628 **부쉐론** 02-3467-8334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쇼메** 02-1670-1180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그라프** 02-3213-2194 **다올** 02-3480-0104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루이 비통** 02-3432-1854 **지마쥬** 02-3496-7718



눈부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퀼트로 레디언트 에디션 인게이지먼트 링 가격 미정 **부쉐론**.



레이스와 골드 메탈 토캡, 발목 스트랩을 더한 펌프스 2백만원대 **지마쥬**.

글: 최지영, 사진: 김지영



송아지가죽 소재에 아이코닉한 FF 버클을 더한 바게트 더블 크로스 보디 백. 19×14×8cm, 가격 미정 **펜디**.



볼드한 아세테이트 프레임이 클래식한 분위기를 배가하는 Esin 선글라스. 가격 미정 **올리버피폴스 by 에실로룩소티카**.



화이트 토파즈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누도 브레이슬릿. 1천9백만원 **포멜라토**.

브라운 아게이트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하이 이트스트리 어 트리뷰트 투 크래프트맨십 에디션 LE 10. 가격 미정 **몽블랑**.



메달리온 패턴을 담은 실크 포켓스퀘어. 60만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리**.



인버스(Inverse) 무브먼트와 무페이징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다이얼 장면에 구현한 파노루나인버스. 가격 미정 **글라슈테 오리지널**.



이동 시 편리함을 더해줄 멀티월 시스템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캐빈. 40×55×23cm, 1백75만원 **리모와**.

블루 레진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올 맨 길로세 브로치. 가격 미정 **디올**.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해줄 디올 움므 더모 시스템 소우딩 펌핑 케어. 50ml 12만8천원 **크리스찬 디올 뷰티**.



블랙 PVD와 화이트 골드가 어우러진 카트로 블랙 에디션 웨딩 밴드. 가격 미정 **부쉐론**.



고급스러운 레더 소재로 완성한 알렉산드로 더비 슈즈. 가격 미정 **벨루티**.



양면으로 활용 가능한 송아지가죽 소재의 리버서블 더블 갠지니 벨트. 83만원 **페라가모**.



펜디 02-544-1925 **에실로룩소티카** 02-501-4436 **포멜라토** 02-3143-9486 **몽블랑** 1877-5408 **크리스찬 디올 뷰티** 080-342-9500 **부쉐론** 02-3467-8334 **벨루티** 02-536-1895 **페라가모** 080-001-1927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글라슈테 오리지널** 02-310-1749 **디올** 02-3480-0104 **리모와** 02-546-3920

(위부터 차례대로) IWC 인제니어 오토매틱 35 1970년 제네바의 시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인제니어 SL을 재해석했다. 35mm 스틸 케이스와 그리드 패턴 다이얼이 특징이며, 무엇보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손목에 편안한 착용감을 더한다. 1천5백80만원. 문의 1877-4315 **볼가리 세르벤테 세투토리 워치** 뱀의 머리가 연상되는 독특한 케이스와 컬러 스톤 옹두, 그리고 뱀의 비늘에서 영감받은 육각형 패턴의 브레이슬릿에서 하이 주얼리 못지않은 우아함이 엿보인다. 8백5만원. 문의 02-6105-2120 **블랑팡 빌레레 캄플리트 캘린더** 38mm 스틸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얼에 문패이즈와 캘린더, 유연하게 밀착되는 밀 마이어 브레이슬릿을 매치했으며,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3천3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까르띠에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 조각들을 얹은 돔 형태의 지름 36mm 스틸 케이스에 실버 마감 기요세 오팔린 다이얼을 조합했으며, 오토매틱 와인딩 메커니즘 무브먼트를 갖췄다. 1천1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에저 르콜트르 리베르스 원 듀에토** 1930년대에 제작한 첫 여성 시계에서 영감받아 앞면은 실버 그레이 다이얼, 간결한 아라비아숫자와 기요세 피나실로 섬세한 매력을 발산하고, 뒷면은 딥 퍼플 컬러와 태양 광선을 연상시키는 방사 형태 인덱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유연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추가해 현대적 디자인과 가벼운 착용감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9-5912 **피아제 식스티 워치** 워치 브랜드를 상징하는 트라페즈 스틸 케이스에 세팅 브러시 실버 다이얼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1개를 세팅한 베젤,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피아제 57P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7백70만원. 문의 1877-4275 **에디터 김하얀**

글라슈테 오리지널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하이엔드 텍스타일 페어, 밀라노 유니카(Milano Unica) 43회

소재는 어떻게 럭셔리가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재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문화적 가치로 만들어내는가. 이탈리아는 그 답을 오랫동안 돌로 보여줬었다. 카라라 대리석은 르네상스 조각의 미감을 만들었고, 트라버틴은 로마의 도시 풍경을 완성했으며, 피에트라 세레나는 피렌체 건축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구축했다. 이곳에서 재료는 단순한 물성이 아니었다. 장인의 손길, 기술의 축적, 시간이 켜켜이 쌓인 문화적 언어였다. 오늘날 그 전통은 또 다른 재료인 텍스타일로 이어지고 있다. 섬유를 고르고, 실을 만들고, 색과 조직을 설계하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완성하는 과정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제조 노하우와 끊임없는 혁신의 태도가 담긴다. 이탈리아 하이엔드 원단이 세계 럭셔리 패션 시장에서 기준점으로 자리 잡은 이유다. 그 흐름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텍스타일 페어 밀라노 유니카(Milano Unica)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총 7백37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아이디어비엘라, 모다 인, 셔츠 애비뉴 같은 주요 섹션에 6백4개 업체가 전시 부스로 참여했다. 특히 해외 바이어 비중은 처음으로 전체 방문객의 약 50%에 이르며, 밀라노 유니카가 이탈리아 섬유 산업을 넘어 글로벌 하이엔드 소재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한층 더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국제성은 아시아와의 연결에서도 드러난다. 밀라노 유니카는 일본관(Japan Observatory)과 한국관(Korea Observatory)을 운영하며 각국 소재 산업의 강점을 소개하고 있다. 제팬 옴지버토리는 일본 섬유 산업의 정밀한 가공 기술과 소재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비슈 올 같은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과 새로운 소재 실험을 하며, 장인적 완성도와 기술적 진화를 함께 추구하는 일본 특유의 방향성이 돋보였다. 2015년부터 참여해온 코리아 옴지버토리는 기능성 섬유와 지속 가능 소재 분야에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빠른 기술 적용력과 산업 대응력은 한국 섬유 산업의 특징이다. 밀라노 유니카가 보여준 것은 국가별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이 연결되는 새로운 소재 생태계였다. 이탈리아가 시간과 장인성을, 일본이 정밀함을, 한국이 기술과 속도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 떠오른다. “전통이라는 뿌리를 어떻게 미래의 혁신으로 연결할 것인가?”

오래된 기술, 새로운 감각으로 진화하다

개막식 주제인 ‘뿌리에서 미래로: 섬유와 패션 혁신의 여정(From Roots to the Future: The Path of Innovation in Textiles and Fashion)’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했다. 오랜 제조 유산을 지

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유산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다. ‘MU IS PUNK!’는 밀라노 유니카의 지속 가능성 트렌드 공간인 MU 트렌드체 소스테니비리티(MU Tendenze Sostenibilità)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번 시즌 콘셉트는 잔 파울로 바르비에리(Gian Paolo Barbieri)의 사진전 <The Radical Elegance>와도 연결되며, 소재와 형태, 미학과 책임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가장 오래된 질문이 남는다. “좋은 소재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아이디어비엘라다.

손끝에서 완성되는 럭셔리, 비엘라에서 여전히 미래를 보다

이탈리아 럭셔리 올의 심장은 비엘라에 있다. 이탈리아 북서부 알프스 기슭에 자리한 비엘라는 풍부한 수자원과 수백 년간 축적된 방직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급 울 원단 산업을 발전시켜온 지역이다. 슈트와 코트, 캐시미어 혼방 소재 등 세계 럭셔리 패션의 기반이 되는 원단이 이곳에서 제작된다. 밀라노 유니카에서 비엘라의 기술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섹션이 아이디어비엘라다. 이곳은 이탈리아 최고급 울 원단 제조사가 모여 장인 기술과 소재 혁신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오래된 생산 노하우가 어떻게 ‘현재의 럭셔리’로 진화하는지 보여준다. 로로피아나(Loro Piana)는 캐시미어와 최고급 천연 섬유가 만들어내는 촉감의 가치를 보여줬고, 에르메네제일로 제네(Ermenegildo Zegna)는 클래식 울에 경량성과 기능성을 더한 현대적인 슈트 소재의 방향을 제시했다. 비탈레 바르베리스 카노니코(Vitale Barberis Canonico)는 오랜 울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슈트 시장의 기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레다(Reda)는 지속 가능한 울 생산과 추적 가능한 공급망을 통해 전통 산업의 변화를 보여준다. 비엘라 섹션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했다. 럭셔리는 더 이상 희귀한 원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 만드는 과정에 적용된 기술, 그리고 소재에 담긴 이야기가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지속 가능성 너머, 소재의 새로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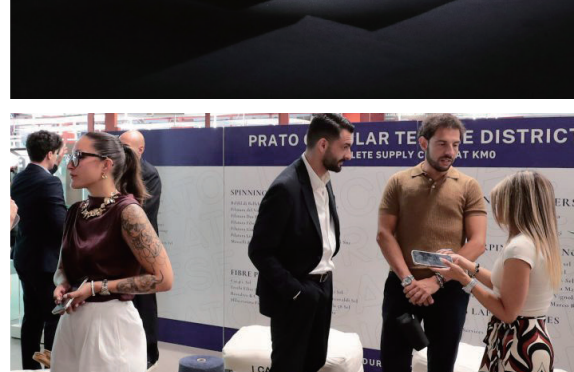
제43회 밀라노 유니카에서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다. 소재의 출발점부터 생산 과정, 공급망의 투명성까지 럭셔리 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됐다. 전통적인 섬유 산업의 기술과 경험은 이제 환경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만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전 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었다. 만테코(Manteco)는 이탈리아 섬유 산업이 순환 경제를 어떻게 럭셔리의 언어로 전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80년 이상 축적해온 울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된 섬유를 선별하고 재생해 새로운 고품질 원단으로 만드는 재활용 울 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대표 소재인 MWool®(M울)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존 섬유의 색과 촉감, 품질을 살려 새로운 소재 가치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여준다. 재활용 섬유 프로젝트 CRP(Cardato Riciclato Pratese) 부스는 지속 가능성을 넘어 지역 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프라토를 중



년 섬유 산업이 과거를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기술과 새로운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밀라노 유니카는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전시장 안에서는 이 질문이 보다 동시대적인 언어로 표현됐다. 2027~28 F/W 시즌을 관통한 크리에이티브 콘셉트는 ‘MU IS PUNK!’였다. 여기서 펑크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익숙한 소재와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창조적 태도다. 전



장인성을 보여준 제팬 옴지버토리. 이번 시즌에는 총 45개 기업이 참여했다. 7, 8 코리아 옴지버토리. 기능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효성은 혁신 섹션에 참가했다. 9 기업의 상징인 ‘베코 도카(Becco d'Oca)’ 오렌지 컬러를 차용한 만테코의 공간 설치. 재활용 울 시스템과 아카이브 공간인 카사 만테코의 모형을 선보인 이 부스는 관람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10 2027-28 F/W 시즌의 창의적 콘셉트 ‘MU IS PUNK!’가 전개된 MU 트렌드체 소스테니비리티 공간. 11 밀라노 출신의 패션 사진가 잔 파울로 바르비에리의 사진전 <The Radical Elegance>. 소재와 형태, 빛과 미학이 만들어내는 패션의 본질을 조명했다. 12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활용해 구성된 밀라노 유니카 전시 공간. 텍스타일을 단순한 제품이 아닌 감각과 이야기, 연구가 결합된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했다. 13 재활용 섬유 공급망의 가치와 인증 활동을 소개한 CRP(Cardato Riciclato Pratese) 부스. 프라토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재활용 섬유 산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알렸다. 14 하이엔드 텍스타일 페어 밀라노 유니카에서 소재와 원단의 디테일을 살펴보는 방문객. 럭셔리 패션을 완성하는 섬세한 촉감과 품질은 끊임없는 소재 개발과 제조 기술의 혁신에 바탕을 둔다. * 이미지 제공: 밀라노 유니카(Milano Unica) / 취재 사진 일부



심으로 이어져온 재생 울 공급망을 유럽연합의 IGP(지리적 표시 보호) 인증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세코(Prosecco), 모데나 발사믹 식초(Aceto Balsamico di Modena)처럼 특정 지역의 전통과 생산 방식을 보호하는 인증 체계를 섬유 산업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다. CRP 관계자는 “처음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였다”라고 설명했다. 폐섬유를 다시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용 효율을 발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물과 토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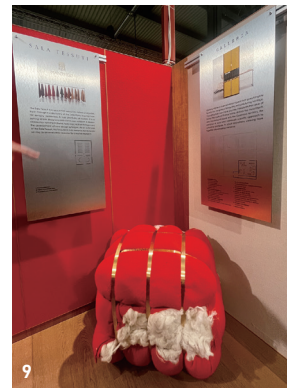
소재의 다음 장, 자연을 다시 설계하다

제43회 밀라노 유니카가 보여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섬유 산업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의 소재는 더 이상 새로운 원료를 찾는 데 머물지 않는다. 바이오 기술, 기능성,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 결합하며 럭셔리 텍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스파이버(Spiber)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일본 바이오 소재 기업인 스파이버는 단백질 기반 소재 브루드 프로틴(Brewed Protein™)을 개발하며 동물성 섬유 특유의 강성과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한다. 스파이버가 제시한 생애 주기 평가(LCA) 기준에 따르면, 캐시미어와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은 75% 이상, 물 사용과 토지 사용은 각각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이버 관계자는 “소재의 감축은 원사 방식과 원단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울렌(woolen) 방식으로는 공기를 머금어 캐시미어 같은 부드러운 감성을, 워스트드(worsted) 방식으로는 실처럼 은은한 광택과 매끄러운 표면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루드 프로틴은 골드윈(Goldwin), 더 노스 페이스(The North Face), 나니미

카(nanamica) 등과 협업했으며, 버버리(Burberry)에도 소재를 공급하는 등 적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에코펠(Ecopel)은 페이크 퍼(fake fur)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기존 퍼(fur)의 외관과 촉감을 유지하면서도 소재의 출발점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에코펠은 최근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넘어 100% 식물 기반(plant-based)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에코펠 관계자는 “가능한 경우 식물 기반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자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에코펠은 한국 시장과의 협업 확대를 언급하며, 서울 동대문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장소로 평가하기도 했다. ‘혁신’ 섹션에 참가한 효성(Hyosung)은 기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소재 혁신의 방향을 보여줬다. 글로벌 퍼포먼스 섬유 브랜드 크레오라(CREORA)를 통해 고기능 원사 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리젠(regen)을 통해 재활용 원료 기반의 지속 가능 소재 개발을 이야기하며 미래 섬유 산업이 요구하는 성능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시간이 만든 럭셔리의 언어

밀라노 유니카의 마지막 메시지는 소재가 단순한 물성이 아니라 문화적 언어라는 점이었다. 전시장 한편에서 선보인 잔 파울로 바르비에리의 사진전 <The Radical Elegance>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패션의 본질은 화려한 장식보다 형태, 빛, 그리고 소재가 자아내는 감각에 있었다. 럭셔리는 더 이상 희귀한 원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기술로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손끝에서 어떤 경험을 전달하는지가 새로운 가치가 된다. 돌을 다루던 이탈리아 장인들이 시간과 기술을 통해 대리석에 생명을 불어넣었듯, 오늘날 텍스타일 산업 역시 실과 원단에 미래의 문화를 새기고 있다. 글 고정연(밀라노 현지 취재)





시간을 품은 밀라노의 역사 공간

저택의 시간을 걷다

이탈리아 건축·디자인계의 대부 조 폰티(Gio Ponti, 1891~1979)는 “건축은 이탈리아인만의 소명은 아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에게 그것은 천직이다”라고 말했다. 삶과 문화가 머무는 공간으로 건축을 바라본 그의 시선은 밀라노의 오래된 저택에서 여전히 확인된다. 시대의 취향과 기억, 장인 정신이 축적된 이곳들은 귀족의 팔라초에서 현대의 문화 공간까지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살아가는 도시의 유산이다. 밀라노의 역사적 저택을 걷는 일은 건축이 아닌 그곳에 깃든 삶과 예술, 시간을 만나는 여정이며, 과거의 공간은 오늘의 감각과 연결되어 미래의 문화적 가치로 이어지는 살아 있는 기억으로 남는다. 이것이 밀라노의 저택이 품은 시간의 이야기다.

뮤세오 폴디 페촐리(Museo Poldi Pezzoli)
수집가의 시간이 머무는 팔라초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뮤세오 폴디 페촐리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방문자를 이끈다. 피에로 델 폴라이올로(Piero del Pollaiuolo, 1443~1496)의 대표작 ‘젊은 여인의 초상’ 속 섬세한 옆얼굴은 오늘날에도 이곳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여인의 윤곽을 따라 흐르는 선은 관람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현대적인 초대장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폴디 페촐리 미술관의 매력은 하나의 걸작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곳은 19세기 밀라노 귀족 잔 자코모 폴디 페촐리가 평생 모은 예술품과 자신의 저택을 시민에게 남기며 탄생한 하우스 뮤지엄이다. 회화뿐 아니라 조각, 가구, 보석, 도자, 직물, 무기와 갑옷에 이르는 방대한 컬렉션은 각각의 방과 어우러져 한 수집가의 취향과 시대의 미감을 보여준다. 내부를 걷다 보면 화려한 거울과 섬세한 장식, 작품과 함께 놓인 가구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끈다. 특히 황금의 방(Salone Dorato)을 비롯한 공간에서는 르네상스 회화와 장식 요소가 하나의 풍경처럼 어우러진다. 작품은 벽에 걸린 독립적인 대상이 아니라, 한때 누군가가 살아가며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폴디 페촐리 미술관이 특별한 것은 컬렉션과 건축, 생활의 기억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개인의 집은 한 수집가의 취향을 넘어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다시 태어났다.



폰다치오네 루이지 로바티(Fondazione Luigi Rovati)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문화 공간

팬데믹 이전에만 밀라노를 방문했던 문화 예술 애호가라면, 폰다치오네 루이지 로바티는 가장 반가운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19세기 팔라초는 2022년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대 에트루리아 문명의 유물과 현대미술을 함께 선보이는 이곳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 오늘날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밀라노의 새로운 얼굴이다. 마리오 쿠티넬라 아키텍츠가 설계한 확장 공간의 중심은 지하 전시 공간이다. 부드러운 회색빛 석재인 피에트라 세레나로 마감한 공간은 곡선과 층위가 어우러져 고대의 방에 들어선 듯한 인상을 준다. 또 납골함과 오브제에 사용된 테라코타, 트라버틴 등 천연 재료의 질감은 고대 유물과 현대 건축 사이에 시간의 층위를 만든다. 반면 주층(piano nobile)은 팔라초의 역사적 뼈대를 간직하면서도 전혀 다른 감각을 보여준다. 목재 장식, 금빛 문, 대리석 벽난로와 거울 등 기존 저택의 요소는 그대로 살아 있지만, 방마다 다른 색채와 전시 구성은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더한다. 루이지 온타니 줄리오 파올리니, 엔디 위홀 등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자리한 각각의 방은 컬렉션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과 작품은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아니라 함께 완성된다. 폰다치오네 루이지 로바티는 역사 건축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과 예술, 연구와 교육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이다. 고대 에트루리아의 유물부터 현대미술, 그리고 이를 담아내는 팔라초까지,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1 조반니 파올로 파나니의 ‘판테온 내부, 로마’(1743)가 걸려 있는 전시실. 2 자상층에 있는 ‘무기와 갑옷 컬렉션’ 전시실. 3 페촐리 미술관의 상징 같은 작품인 피에로 델 폴라이올로의 회화 작업 ‘젊은 여인의 초상’. ※ 1~3 이미지 제공, Museo Poldi Pezzoli
4 폰다치오네 루이지 로바티의 주층(Piano Nobile)에 자리한 온타니 룸. 루이지 온타니의 작품 세계와 고대 유물의 대화를 보여준다. 5 같은 층에 위치한 줄리오 파올리니 룸. 6 석재가 인상적인 지하 전시층의 입구. 에트루리아 유물을 위한 지하 전시 공간은 고대의 방을 연상시킨다. ※ 4~6 이미지 제공, Fondazione Luigi Rovati. Photo by Giovanni de Sandre
7 빌라 네키 캄필리오 주층의 다이닝 룸. Photo by arenaimmagini.it(2021)
8 유리 온실처럼 정원과 연결된 베란다. Photo by arenaimmagini.it(2014)
9 아르투로 마르티니의 조각 작품 ‘죽은 연인이 보이는 자상층 내부 홀’. Photo by Lorenzo Pesce (2023)
※ 7~9 이미지 제공, © FAI - Fondo per l'Ambiente Italiano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집

밀라노 중심부의 조용한 거리 안쪽, 풍성한 녹음 속에 자리한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는 1930년대 밀라노 상류층의 생활 방식과 미감을 간직한 공간이다. 팔라초와는 다른 성격의 주거 건축이지만, 한 시대의 삶과 예술적 취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밀라노를 대표하는 하우스 뮤지엄으로 자리한다. 건축가 피에로 포르탈루파가 네키 자매와 안젤로 캄필리오를 위해 설계한 이 빌라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근대 주거 공간이었다. 넓은 창과 선명한 구조, 정원과 이어지는 공간,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는 사적인 삶과 사교 문화, 휴식이 공존하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여름철 짙은 초록으로 물든 빌라의 외관과 아름다운 정원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아이 엠 러브’에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빌라는 화면 속 이미지보다 실제 방문했을 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긴다. 네키 가문의 생활공간은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후 더해진 컬렉션은 공간에 예술적 깊이를 배가한다. 알리에기로와 에밀리아에타 데 미켈리(Alighiero ed Emilettia de' Micheli) 컬렉션과 클라우디아 잔 페라리(Claudia Gian Ferrari) 컬렉션을 통해 티에폴로, 카날레토, 시로니, 데 키리코 등 작가들의 작품이 자리한다. 이 빌라는 집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한 시대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활 풍경이다. 글 고정연(밀라노 현지 취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딥티크 오르페옹 오 드 퍼퓸 시트러스와 스파이시 노트, 시더우드가 조화를 이루며 청량하면서도 깊이 있는 여운을 남긴다. 100ml 27만5천원. 문의 02-3479-6049 사일 N°5 오 드 푸알렛 장미와 재스민, 일랑일랑의 플로럴 부케에 알데하이드와 샌들우드, 베티베르의 은은한 우디 플로럴 향이 특징이다. 75ml 24만8천원. 문의 080-805-9638 에르메스 뷰티 윤 자르맹 수 라 메르 오 드 푸알렛 미네랄과 티아레 꽃, 타마누 열매의 향이 조화를 이루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해변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100ml 24만5천원. 문의 02-310-5174 메모파리 캅 카마라 오 드 퍼퓸 프랑스 남부 지역 캅 카마라의 황금빛 암벽과 푸른 수평선에서 영감받았다. 맑고 투명한 아쿠아틱 노트 위로 재스민 삼박과 유게가 부드러운 향을 더하고, 아미리스와 샌들우드, 벤조인, 바닐라의 진향이 포근함을 선사한다. 75ml 42만원대. 문의 1644-4490 베르사체 크리스탈 에메랄드 오 드 퍼퓸 에메랄드를 모티브로 탄생한 보틀이 돋보인다. 베르가모트의 산뜻함과 그린 로즈버드, 재스민의 플로럴 노트가 조화를 이루고, 화이트 머스크가 진향을 남긴다. 90ml 19만5천원대. 문의 02-3453-7577 아쿠아 디 파르마 본 조르노 부오나노테 칼라브리아산 베르가모트와 핑크 페퍼의 산뜻함에 오라스 필리다와 가이아 우드를 가미해 섬세한 우디 머스크 향을 완성했다. 100ml 49만5천원. 문의 02-3479-1811 루이 비통 애프터눈 스웸 브랜드의 시그니처 퍼퓸 보틀에 담은 베르가모트, 진저, 오렌지의 생동감 있는 시트러스 노트가 더운 여름날 청량한 활력을 전한다. 100ml 가격 미정. 문의 02-3432-1854 이세이 미야케 휘미에르 디세이 오 드 퍼퓸 그린 만다린의 싱그러움에 머스키 오렌지 블라섬이 레이어되어 스파클링 플로럴 향을 느낄 수 있으며, 파스타치오 우디 어코드가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을 발산한다. 100ml 19만5천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신정민



Notes of August

청량한 시트러스와 섬세한 플로럴, 싱그러운 그린 노트와 깊이 있는 우디 향. 여름의 감각을 담은 프레이그런스.

PHOTOGRAPHED BY **CHOIMINYOUNG**

Spirit of Exploration

한 점의 시계에는 수백 년에 걸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시간이 담겨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백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장인 정신과 정교한 기술력을 계승하며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메종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이러한 철학은 오버시즈(Overseas) 컬렉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행과 탐험에서 비롯된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컬렉션은 실용성과 우아함이 어우러진 독창적 미학을 보여주며,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럭셔리 스포츠 위치의 기준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과 오버시즈 듀얼 타임 카디널 포인트를 선보이며 컬렉션의 스펙트럼을 한층 확대했다. 더욱 진화한 오버시즈 컬렉션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볼 시간이다.

PHOTOGRAPHED BY KIMHEU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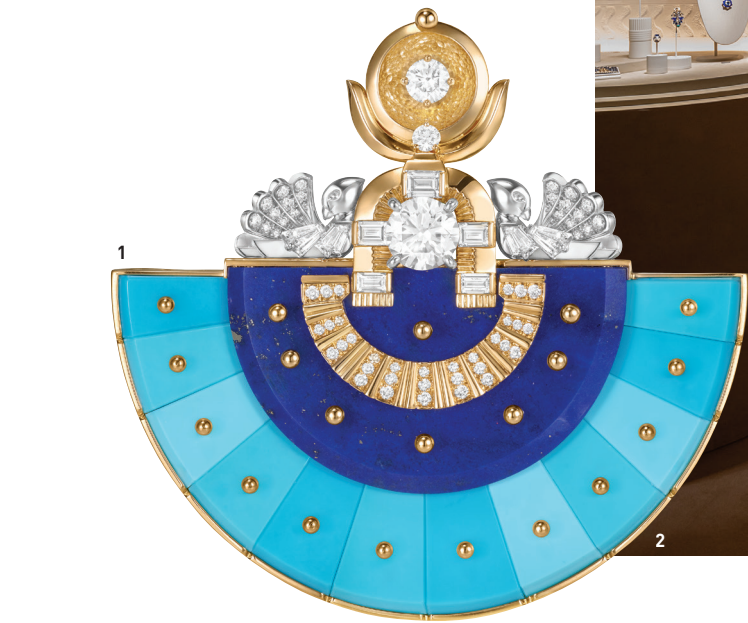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은 지름 34.5mm 케이스와 육각형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베젤, 러버 스트랩과 브레이슬릿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스트랩 옵션을 제공한다. (왼쪽부터) 새틴 선버스트와 벨벳 피니싱으로 완성한 다이얼에 3시 방향 날짜창, 슈퍼루미노바® 코팅 18K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 등을 배치한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딥 레드 워치, 별도의 도구 없이 러버 스트랩,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 브레이슬릿 등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4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매뉴팩처 칼리버 1088/1로 구동하는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로즈 골드 워치 모두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견고함과 가벼운 무게를 동시에 구현한 41mm 티타늄 케이스, 일체형 브레이슬릿과 교체 가능한 플딩 버클, 브랜드를 상징하는 말테 크로스 형태의 노치 디테일을 겸비한 오버시즈 듀얼 타임 카디널 포인트. (왼쪽부터) 울창한 숲과 열대 정글을 연상시키는 그린 다이얼에 스네일 마갈 기법의 6시 방향 날짜 카운터, 내부 마닛 트랙과 외부 세컨즈 트랙, 오전과 오후를 표시하는 오렌지 컬러 핸즈를 더했다. 그린과 오렌지 컬러의 러버 스트랩을 제공하는 오버시즈 듀얼 타임 카디널 포인트 웨스트,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동쪽 지평선을 상징하는 블루 다이얼과 티타늄 베젤, 말테 크로스를 형상화한 티타늄 브레이슬릿이 조화를 이룬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 너머로 감상할 수 있는 매뉴팩처 칼리버 5110 DT/3은 2개의 타임존으로 여행 컴플리케이션의 면모를 드러낸다. 블루와 오렌지 컬러 러버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한 오버시즈 듀얼 타임 카디널 포인트 이스트, 모두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에디터 김하얀

Fascinating Egypt

매해 문학, 자연, 쿠티르 같은 서정적인 테마를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해온 반클리프 아펠의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 올해는 2천 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세상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자극해온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탄생한 ‘매혹적인 이집트(Fascinating Egypt)’ 컬렉션은 오랜 시간 메종의 창작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어온 이집트의 유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창의성을 더해 반클리프 아펠만의 독창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파라오의 시대가 남긴 영원한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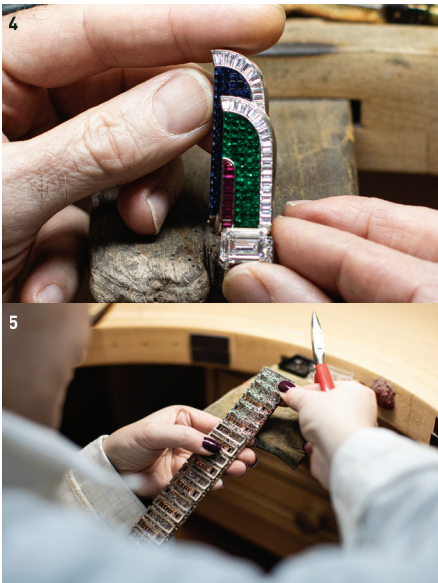
파라오가 통치하던 고대 이집트 문명은 2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다채로운 문화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움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한 매혹은 시대를 거치며 예술과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작품과 새로운 유산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파라는 이집트 문명에 대한 관심이 유독 뜨거웠던 도시다. 1822년 상물리움의 상형문자 해독, 1836년 콩코르드 광장에 세운 룩소르 오벨리스크, 그리고 20세기 장식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이집토타니아(Egyptomania)에 이르기까지, 이집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프랑스 예술계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1906년 반클리프 아펠이 탄생했을 당시에도 파리의 예술계는 이집트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1909년 사틀레 극장에서 세르지 다길레프(Serge Diaghilev)의 발레 루스(Ballets Russes)가 선보인 《클레오파트라》는 화려한 의상과 웅장한 무대 연출로 관객들을 고대 이집트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러한 열기는 1922년 11월 26일,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Howard Carter)가 오랜 탐사 끝에 왕가의 계곡에서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무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금 주얼리와 조각상, 귀중한 오브제, 켈스톤을 세팅한 유물들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고대 이집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은 반클리프 아펠에도 즉각적인

영감을 안겨주었고, 1923년과 1924년에 제작된 여러 작품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메종의 패트리모니 컬렉션에는 이집트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약 10점의 귀중한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이집트 문명** 이번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반클리프 아펠은 이집트 문명과 메종이 함께 쌓아온 유산에 경의를 표하는 1백80여 점의 하이 주얼리 작품을 선보인다. 디자인의 출발점은 메종의 패트리모니 컬렉션뿐 아니라 1930~50년대 이집트 왕실이 소장했던 반클리프 아펠의 작품, 이집트 박물관의 유물과 아카이브, 상형문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료에서 찾았다. 이를 통해 얻은 조형 언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메종의 켈스톤 전문가와 숙련된 장인의 기술력을 더해 정교하면 서도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탄생시켰다. 이번 컬렉션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메종의 상징적인 미스터리 세팅 기법이다. 보석을 한 뼘 한 뼘 수놓듯 세팅하는 이 기법은 보석의 금속 프롱을 완전히 감춰 회화나 조각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평면적인 이집트 벽화의 조형미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이집트 도상학에서 중요한 상징인 연꽃은 1910년대부터 메종의 작품에 등장했으며, 1922년 투탕카멘 무덤 발굴 이후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연꽃을 형상화한 ‘플레르 드 로투스 미스터리유즈(Fleur de Lotus Mystérieuse)’ 클립을 비롯해, 이집트 신화 속 다양한 동물 신을 모티브로 한 클립들이 모두 미스터리 세팅 기법으로 완성되었다. 이집트 벽화 역시 주얼리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파라



미드의 풍경과 파라오의 마스크, 고대 신전 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스톤을 마이크로 모자이크처럼 세밀하게 세팅했으며, 인그레이빙, 해머링, 폴리싱, 가드룬 등 여러 금세공 기법을 조화롭게 활용해 실제 벽화를 보는 듯한 깊이와 질감을 표현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과 사원에서 발견되는 벽화는 연화와 종교 의식, 장례 의식뿐 아니라 당시 무용 예술의 중요성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메종은 오랫동안 창작의 원천이 되어온 ‘춤’이라는 테마를 이집트 문화와 연결해 ‘댄수즈 오 탕부랭(Danseuse au Tambourin)’, ‘댄수즈 오 플라벨름(Danseuse au Flabellum)’, ‘댄수즈 오 로터스(Danseuse aux Lotus)’ 클립을 선보인다. 골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은 견고함과 여백의 균형 속에서 무용수의 우아한 움직임과 음악에 따라 물결치는 패브릭의 유려한 흐름까지 섬세하게 담아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문자 체계인 상형문자에 대한 탐구도 컬렉션 전반에 녹아 있다. 각 원소를 상징하는 상형문자를 스노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로 앙상화한 모티브로 표현한 ‘오리진 드 로(Origine de L’eau)’, ‘오리진 플로랄(Origine Florale)’, ‘오리진 뒤 솔레이유(Origine du Soleil)’ 각테일 링은 상형문자를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상형문자가 띠처럼 이어지고, 쿠션 컷 컬러 스톤으로 마무리한 ‘프라그망 드 보네르(Fragment de Bonheur)’, ‘프라그망 마니프크(Fragment Magnifique)’, ‘프라그망 드 보테(Fragment de Beauté)’ 클립 역시 이집트 문화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컬렉션의 모든 작품에는 반클리

프 아펠의 모노그램을 상형문자 카르투슈로 재해석한 특별한 각인을 새겨, 메종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 바치는 깊은 헌사를 완성했다. 그 외에도 1백80여 점에 이르는 각각의 작품에는 이집트 유산을 향한 반클리프 아펠만의 해석과 메종의 탁월한 주얼리 제작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처럼 방대한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재탄생시킨 것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켈스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독보적인 장인 정신, 그리고 메종의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매혹적인 이집트’ 컬렉션은 단순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머물지 않는다. 시대를 초월한 예술과 장인 정신이 만나 완성한 또 하나의 유산이자, 반클리프 아펠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헌사라 할 수 있다. 문의 1877-4128



- 1 태양신 라의 딸이자 권능의 뿔을 지닌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에서 영감받은 ‘베누스 에집시엔(Vénus Égyptienne)’ 클립.
- 2 파리의 매혹적인 이집트 하이 주얼리 컬렉션 전시 공간.
- 3 한층 더 발전한 미스터리 세팅 기법을 잘 보여주는 클립.
- 4 클립에 스톤을 세팅하는 모습.
- 5 페이사쥬(Paysage) 브레이슬릿 제작 과정.
- 6 옐로 및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와 블랙 스파넬을 사용해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풍경을 묘사한 ‘페이사쥬 메르베리유(Paysage Merveilleux)’ 브레이슬릿.
- 7 8.02캐럿 콜롬비아산 쿠션 컷 에메랄드 1개를 센터 스톤으로 배치하고, 그 주위에 원소를 상징하는 상형문자를 그려 넣은 ‘오리진 플로랄(Origine Florale)’ 각테일 링.
- 8 이집트 도상학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연꽃을 묘사한 ‘플레르 드 로투스 미스터리유즈(Fleur de Lotus Mystérieuse)’ 클립. 로즈 및 옐로 골드에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미스터리 세팅으로 완성했다.
- 9 블루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네크리스.
- 10 반클리프 아펠 회장 및 CEO 캐서린 레니에.



Special Interview

고대와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이 주는 감동

반클리프 아펠의 테마틱 하이 주얼리 ‘매혹적인 이집트’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반클리프 아펠 회장 및 CEO 캐서린 레니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Style Chosun(이하 SC) 반클리프 아펠의 테마틱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문학, 자연, 쿠티르 같은 서정적인 테마를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이번 ‘매혹적인 이집트’ 컬렉션은 위대한 문명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장대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적 서사를 주얼리 예술로 섬세하게 재해석하는 창조적인 여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첫 번째 파편을 섬세하게 담아낸 것입니다. 각각의 클립은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파편의 불규칙한 형태에도 온전한 메시지를 새겨 넣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매우 기하학적인 장식적의 형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도록 섬세하게 설계했습니다.

SC 다양한 클립에 적용된 미스터리 세팅(Mystery Set)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에 담긴 하이 주얼리 장인 정신이나 기술적 도전 과제에 대해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미스터리 세팅 하면 네크리스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번에 저희는 미스터리 세팅을 적용한 작은 클립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대담한 컬러 조합을 통해 미스터리 세팅의 강점과 아름다움을 담아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기술적인 도전 과제라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의 작품에 세 가지 컬러의 스톤을 미스터리 세팅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보통 저희의 미스터리 세팅은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더해 단색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다양한 오픈덴탈 스톤을 활용해 색채의 향연을 펼치고 대담함을 표현했습니다. 베누스 미스터리유즈 클립에서는 두 가지 컬러 조합을 볼 수 있으며, 피그망 미스터리유즈 링에서는 세 가지 색상의 미스터리 세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색채의 유희이기도 합니다. SC 클립 디자인 중 고고학적 발굴품을 연상시키는 정형화되지 않은 불규칙한 느낌의 프라그망 클립(Fragment clips)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메종은 이번 컬렉션을 선보일 때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여러 유서 깊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물론, 베를린의 노이에스 박물관까지요. 특히 베를린에서는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유서 깊은 건물에 수많은 유물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고귀한 유물들이 지극히 현대적인 공간에 놓인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희 아틀리에에 고대와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고자 하는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프라그망 클립들은 박물관이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듯 고귀한 파편을 섬세하게 담아낸 것입니다. 각각의 클립은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파편의 불규칙한 형태에도 온전한 메시지를 새겨 넣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매우 기하학적인 장식적의 형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도록 섬세하게 설계했습니다.

‘매혹적인 이집트’ 컬렉션 작품들은 골드 표면이 섬세하게 돌아나 있거나, 조각된 돌의 부조(bas-relief)처럼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골드는 질감 있는 화이트 다이아몬드 표면에 우아하게 자리하고, 실루엣의 두 번째 층에 자리한 옐로 골드가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그 빛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SC 시계가 정밀함과 신뢰의 언어라면, 주얼리는 감성적 취향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두 세계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오래 머무는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야를 아우르는 반클리프 아펠이 고객의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남기를 바라시나요? 저희는 작품 하나하나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불어넣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피스는 창조적인 영감뿐 아니라 기술적인 완벽함까지 고려해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도록 고안됩니다. 섬세한 조립 과정과 수많은 조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주얼리 제작의 복잡성은 모든 작품이 오랜 세월 변함없이 지속되고 착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또 작품을 창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다양한 목선과 손가락, 손목에 우아하게 어울리도록 디자인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작품이 수십 년간 소유자의 삶과 함께하며 영원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종이 1백20여 년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온 미학적 표현, 즉 헤리티지에서 영감받은 테마를 끊임없이 재조명하고, 깊이를 더하며 발전시켜온 것이 모든 작품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세월을 초월한 가치를 선사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랜드스케이프 브레이슬릿(landscape bracelet), 미스터리 세팅, 그리고 변형 가능성(transformability) 같은 메종의 시그니처 기법을 모든 컬렉션에 다시 적용하며, 이러한 독창적인 장인 정신이 해마다 작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처럼 메종의 독보적인 장인 정신과 상징적인 기법, 그리고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더욱 발전하는 보편적인 테마는 작품이 세월을 넘어 영원히 빛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가치는 저희가,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작품을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며, 그 특별한 순간의 아름다운 기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이 됩니다. 에디터 성정민



인간의 본질을 담은 하이 주얼리

까르뜨 블랑슈는 부쉐론이 선보이는 가장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혁신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매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Claire Choïne)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하이 주얼리라는 언어로 풀어낸 것이다. 2024년에는 점차 희소해지는 물의 가치를 조명한 ‘오어 블루(Or Bleu)’ 컬렉션을, 2025년에는 자연의 소멸을 화두로 한 ‘임퍼머넌스(Impermanence)’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리고 올해, 부쉐론은 점점 더 인공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결국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Human Being’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5점의 하이 주얼리를 통해 인간을 연결하는 ‘닿음’과 각자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다름’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를 위해 매종의 클러스터 모티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여러 개의 젬스톤이 조화를 이루는 네크리스와 링으로 구성된 5개의 주얼리 세트는 동일한 형태적 기반 위에서 각기 다른 미학과 고유성을 지닌다. 모든 작품은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장인 기술과 제작 기법을 통해 완성되었다. 불륨의 변화, 젬스톤의 배열, 빛을 다루는 방식의 미묘한 차이는 각각의 작품에 독창적인 존재감을 부여하며, 저마다 다른 인간의 개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볼수록 선명해지는 고유한 매력처럼, 2026 까르뜨 블랑슈 ‘Human Being’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존재 자체의 본질과 가치를 찬미한다. 각기 다른 개성과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정교한 하이 주얼리 노하우를 집약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장인들이 협업해 약 1만4천 시간에 걸쳐 완성한 이번 컬렉션은 부쉐론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적 깊이와 장인 정신, 그리고 매종만의 창조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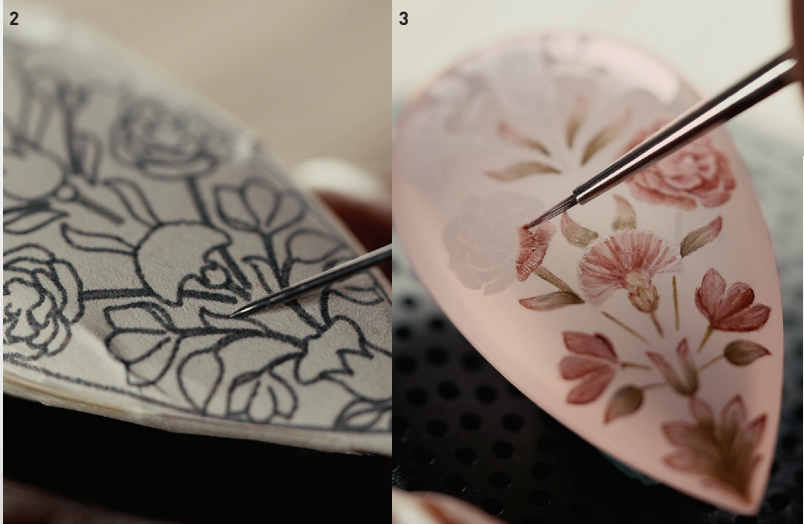
“*‘Human Being’ 컬렉션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인간에 주목한 것으로 모두 동일한 형태를 띠지만, 서로 다른 노하우(savoir-faire)를 기반으로 완성된다*”

In Bloom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봉오리부터 완전히 만개한 꽃잎에 이르기까지, 개화의 모든 순간이 하나의 네크리스에 펼쳐진다. 착용하는 순간 몸 위로 꽃이 피어나는 듯한 ‘플라워(FLOWER)’ 네크리스는 마이크로 미니어처 페인팅(micro-miniature painting)을 통해 탄생했다. 아주 작은 로즈 퀴츠에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쉼아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스톤 중에서도 색감과 투명도가 균일한 로즈 퀴츠를 엄선한 뒤, 장인이 미세한 붓으로 꽃잎의 결을 한 겹씩 섬세하게 그려 넣는다. 각각의 로즈 퀴츠는 확대 장비를 통해 개별적으로 채색되며, 모든 스톤이 하나의 꽃처럼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풍부한 색조를 품은 각각의 스톤을 제작하려면 마이크로 페인팅과 매트 바나시 공정을 포함해 평균 10시간이 소요되며, 세트 전체에 투입된 작업 시간만 1천2백 시간이 넘는다. 완성된 스톤은 형태에 맞춰 정교하게 가공한 뒤 클로나 플랫폼 같은 금속 고정 장치가 드러나지 않는 핀 구조에 장착한다. 덕분에 꽃잎 본연의 형태와 막 피어난 꽃의 생명력을 더욱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다.

The Essence of Being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매년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하는 부쉐론의 까르뜨 블랑슈(Carte Blanche)는 올해 그 답을 가장 근원적인 존재, 인간에게서 찾았다. ‘Human Being’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닿음’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다름’에 주목하며, 각자가 지닌 특별한 아름다움을 5점의 주얼리에 담아냈다. 매종의 혁신적인 창의성과 장인 기술을 결합해 탄생시킨 이 컬렉션은 주얼리와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며 경멸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Suspended Drops

다이아몬드가 피부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순간을 형상화한 ‘레인(RAIN)’. 소재의 존재감을 극도로 절제한 이 작품은 마치 시간과 공간 사이를 부유하는 듯 초현실적인 인상을 자아낸다. 비의 투명함과 유려한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은 매종이 오랜 시간 활용해온 록 크리스탈을 다시 선택했다. 정교하게 조각한 록 크리스탈 안에 속이 빈 물방울 형태를 만들고, 내부에는 식물성 레진을 여러 겹으로 채운 뒤 각 층에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수작업으로 배치했다. 그 결과 어느 방향에서 보든 입체적인 실루엣을 느낄 수 있으며 총 4천8백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는 록 크리스탈 내부에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 낸다. 각각의 물방울은 유연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절 구조의 메탈 프레임으로 연결했으며, 완벽한 투명성을 위해 연결 부위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기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정은 진공 상태에서 진행했다. 이렇듯 ‘레인’은 자연이 빚어낸 침나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는 기술과 장인 정신을 통해 이를 영원한 조형으로 완성한 하이 주얼리다.



The Craft of Inscription

피부에 새긴 타투에서 영감을 받은 ‘타투(TATOO)’는 주얼리와 신체, 장식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한 작품이다. 디자인 모티브는 빅토리아시대 타투의 미학에서 출발했다. 양귀비와 장미, 박새, 나비, 식물 등 매종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상징과 아카이브에서 차용한 요소를 결합해 풍부한 서사를 완성했다. 이 문양들은 네크리스와 링의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 오차 없는 대칭을 이루며 펼쳐진다. 마치 피부에 직접 새긴 타투처럼 신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타투 네크리스는 주얼리와 타투의 경계를 흐리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 같은 실재감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는 스모키 퀴츠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조각 기법인 글리프틱 아트(glyptic art)를 적용해 빛의 투과와 입체적인 부조 효과를 이끌어냈다. 각 스톤의 뒷면은 글리프틱 장인이 직접 조각했는데, 색을 사용할 수 없는 이 기법은 표현의 질감과 미세한 명암의 차이만으로 납다른 디테일을 만들어낸다. 모든 선과 곡선은 빛이 반사되는 방식까지 고려해 설계됐으며,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완성도를 구현했다. 특히 이번 세트를 위해 장인들은 2개 개가 넘는 전용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각각의 도구는 특정 공정에 맞춰 제작됐고, 단단한 퀴츠를 다루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마모된 도구 역시 반복적인 연마와 개조를 통해 최적의 형태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집요한 연구 끝에 퀴츠에 정확한 패턴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Flowing Rad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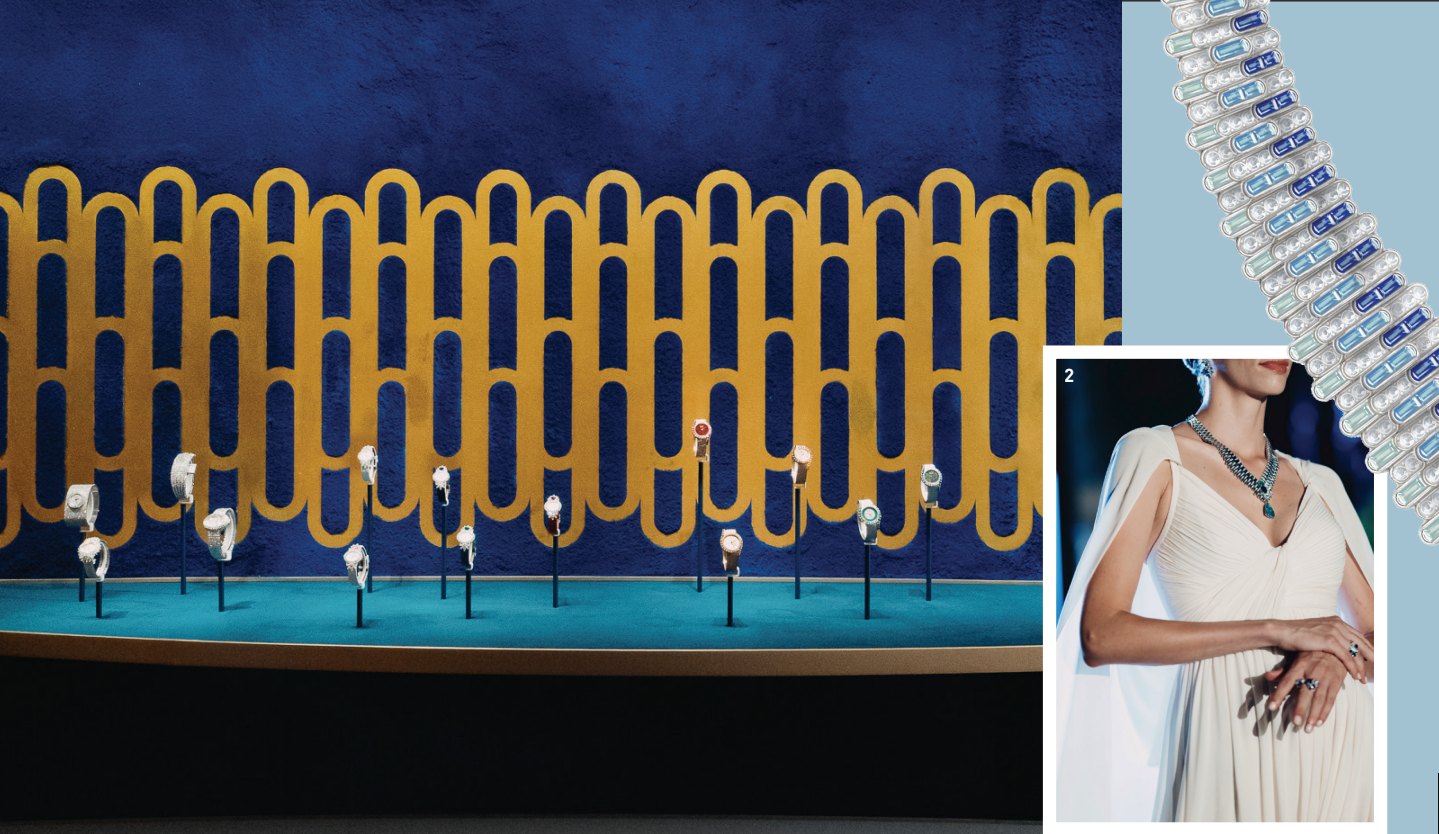
찬란한 빛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한 ‘라이트(LIGHT)’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모가나이트를 조합하고 배치해 독창적인 조형미를 완성했다. 일부 스톤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빛이 스톤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하고 내부로 더욱 풍부하게 확산되도록 설계했다. 이처럼 빛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작 과정에 높은 수준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그 첫 단계는 젬스톤의 선택이다. 동일한 컬러 농도를 지닌 1,500캐럿 이상의 모가나이트를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각 스톤의 특성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 하나씩 선택했다. 특히 섬세한 모가나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스톤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해머링 기법은 배제했다. 대신 장인들은 각 스톤의 형태에 맞춰 프롱(prong)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나사 방식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 모가나이트 클러스터에 다이아몬드를 직접 세팅하기 위해 스톤 내부를 가공하고, 메탈 프레임워크가 자리할 공간을 확보한 뒤 최종 세팅을 완성했다. 이 주얼리 세트는 빛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약 3천7백50시간에 걸친 장인 정신과 혁신적 공정을 쏟아부어 얻은 결실이다. 부쉐론은 이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이 주얼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Geometry Reimagined

‘체커스(CHECKERS)’는 클레어 슈완이 가장 사랑하는 체크 패턴, 하운즈투스에서 착안했다. 블랙 오닉스에 직물의 구조를 새겨 마치 큐티르 의상처럼 해석한 이 주얼리는 부쉐론이 오랜 시간 이어온 패션계에 대한 존중과 매종만의 창조적 사선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핵심은 단순히 패브릭 패턴을 주얼리에 옮기는 것이 아니다. 오닉스 표면에 인그레이빙해 직물의 질감과 깊이감까지 표현하고자 했다. 제작 초기 단계부터 전체적인 균형과 형태의 조화를 고려한 CAD 모델링을 진행했으며,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초정밀 기술인 펄토 초 레이저(femtosecond laser)를 도입해 오닉스 표면을 원하는 깊이로 가공했다. 초고속 마이크로 펄스를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이 기술은 패턴의 질감과 입체감을 살리는 동시에, 스톤 본연의 구조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적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운즈투스 패브릭이 네크리스 위에 자연스럽게 드려온 듯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 장인들은 물방울 형태의 각 스톤 위에서도 하나의 패턴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고안했다. 1백63개의 오닉스는 각각의 형태에 맞춰 개별적으로 디자인·가공했으며, 곡면 위에서도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패턴을 새겼다. 마지막으로 네크리스 중앙에 배치한 6개의 오닉스는 착용감을 고려해 내부를 비우는 공정을 거쳤다.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인의 기술, 첨단 공정의 결합으로 완성된 ‘체커스’는 패션과 주얼리, 예술과 기술이 공존하는 부쉐론만의 창조적 비전을 보여준다. 문의 080-822-0250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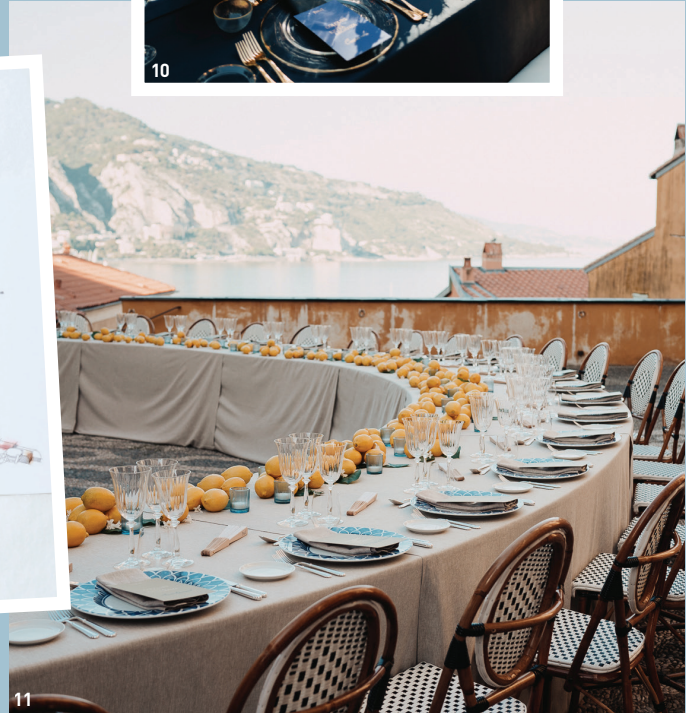


“
피아제는 대담함과
컬러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우아함과
착용감을 고려하며
의외의 요소들의 조화로
엑스트라레간자를
완성했다”



The Legacy of Color

눈부신 지중해의 태양 아래 피아제의 화려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졌다. 푸른 바다, 붉은 태양, 켈트노란 레몬. 프랑스 망통의 유서 깊은 빌라에서 선보인 피아제의 ‘컬러 오브 엑스트라레간자(Colours of Extraleganza)’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이었다. 피아제만의 빛나는 컬러와 모던한 디자인 속에서 돋보인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유쾌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기억으로 남는다.



피아제의 영혼, 컬러

지구 깊은 곳의 역사를 담고 있는 스톤은 저마다의 신비로운 컬러로 인류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준다. 각각의 스톤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장인들의 역할이다. 피아제에 있어 컬러는 ‘언어이자 유산’이다. 1963년 피아제 장인들은 골드 스톤 다이얼을 결합한 주얼리 위치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얼리를 창작하며 워치메이킹에서 주얼리로 영역을 확장해, 켄스톤의 컬러와 골드를 매치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컬러가 돋보이는 피아제의 디자인은 생동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독보적인 창작물이었다. 피아제의 표현대로 ‘컬러는 감정을 표현하는 무대’가 되어 피아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다. 2026년 여름에 선보인 ‘컬러 오브 엑스트라레간자(Colours of Extraleganza)’라는 대서사시는 피아제가 우리를 컬러로 이끄는 화려한 초대장이다. 메종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2024년 ‘에센스 오브 엑스트라레간자(Essence of Extraleganza)’, 2025년 ‘셰이프 오브 엑스트라레간자(Shapes of Extraleganza)’에 이은 하이 주얼리 3부작을 완성하는 ‘컬러 오브 엑스트라레간자’. 메종의 아트 디렉터 스테파니 시브리에르가 이끄는 메종의 아틀리에 드 렉스트라오디네르(Ateliers de l’Extraordinaire)에서 탄생한 65점의 크리에이션은 때론 부드러운 조화, 때론 강렬한 컬러의 대비를 보여주며 피아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대담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피아제, 자연의 빛과 함께 재탄생하다

망통의 바닷가에 위치한 유서 깊은 빌라 마리아 세레나(Villa Maria Serena)에서 펼쳐진 이번 전시는 다양한 컬러의 컬러 오브 엑스트라레간자뿐 아니라 피아제의 대담한 예술적 영감을 엿볼 수 있는 아카이브 작품, 창의성이 돋보이는 오브제, 하이 테크놀로지와 럭셔리가 어우러진 하이엔드 워치 등 피아제의 역사와 자부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컬러풀하고 모던한 그래픽 패턴을 배경으로 전시된 피아제의 주얼리는 각각 다른 스톤과 컬러의 절묘한 조화가 빛내는 예술성을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번 컬렉션에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켄스톤 자체보다 이들의 컬러가 지닌 힘입니다. 컬러의 존재감과 그 안에 담긴 에너지, 그리고 서로 다른 컬러가 만났을 때 드러나는 특별한 매력에 주목했죠. 초록빛을 띠는 블랙 오팔과 울트라마린 사파이어의 조합, 그리고 서로의 핑크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핑크 사파이어와 머더오브벌의 조화처럼 말이죠.” 아트 디렉터 스테파니 시브리에르의 설명이다.

장인 정신과 예술성이 창조한 독창적인 미학

이번 컬렉션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는 ‘블루 일루전(Blue Illusion)’ 네크리스다. 피아제 아틀리에에서 9백여 시간에 걸쳐 완성된 이 특별한 작품은 8.52캐럿 마다가스카르산 쿠션 컷 사파이어의 깊은 블루 컬러와 3.3캐럿 파라이바 투르말린의 라군 그린 컬러를 깊고 풍부하게 엮어낸다. 여기에 단 하나뿐인 13.98캐럿 블랙 오팔이 선사하는 신비로운 정복력이 더해져 빛나는 존재감을 발산한다. 컬렉션을 대표하는 또 다른 작품은 쏘프와 워치(Sautoir Watch)다. 쏘프와 워치는 1969년, 피아제의 전설적인 ‘21세기 컬렉션(21st Century Collection)’에서 첫선을 보냈다. 이 쏘프와 워치가 ‘플랑부아양 링크(Flamboyant Links)’ 모델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파스한 느낌의 타이거 아이, 그리고 이를 아름답게 감싼 로즈 골드가 돋보인다. 4.13캐럿 만다린 가운으로 장식한 쏘프와 워치는 초거 형태 또는 브레이슬릿 워치 형태로도 변형 가능해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다. 인그레이빙 장식의 골드와 선명한 결이 돋보이는 타이거 아이로 완성된 링크 디테일은 피아제의 탁월한 장인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제나 우아함과 착용감을 함께 고려하는 피아제의 장인 정신은 이렇게 워치메이킹과 주얼리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며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유구적인 형태와 1960년대의 대담함으로 피아제의 아이코닉한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에센시아(Essentia) 컬렉션의 링 워치, 조각적인 디자인의 실험적인 작품 크로마틱 블룸(Chromatic Bloom) 세트, 하늘빛과 바다빛을 이어주는 듯한 블루 리플렉션(Blue Reflection) 세트, 메종의 탁월한 골드 세공 노하우를 보여주는 ‘골드 스월(Gold Swirl)’ 라인, 새로운 알티플라노 메티에 다르(Altiplano Métiers d’Art) 작품, 그리고 프랑스 아티스트 알렉스 팔렌스키(Alex Palenski)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모빌 작품 등 피아제의 도전적이고 예술적인 실험 정신은 이번에도 선보인 컬렉션을 통해 스톤과 골드, 컬러와의 끊임없는 변주곡과 함께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완성되었다. 이렇듯 2026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피아제의 창조적 영감을 찬미하는 작품으로, 컬러와 소재, 형태에 대한 대담한 실험 정신을 이어간다. 또 이번 컬렉션은 하이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를 하나로 융합하는 피아제만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구현하며, 워치메이커에서 주얼러로 발전해온 메종의 유산도 함께 보여주었다. 피아제의 컬러 팔레트는 단순한 컬러의 나열에 머물지 않는다. 지구가 선사하는 모든 경이로운 컬러를 독창적인 감각의 하이 주얼리로 구현해내는 피아제의 작품은 컬러가 피아제의 영혼이며 정체성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상상 그 이상의 눈부심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피아제의 독보적이고 찬란한 여정은 여전히 계속된다.



1 피아제의 끊임없는 창의성과 워치메이커에서 주얼러로 발전해온 메종의 유산을 보여주는 전시. 2, 3 피아제의 2026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발산하는 블루 일루전(Blue Illusion) 네크리스와 모델이 착용한 모습. 이브 피아제가 가장 사랑했던 13.98캐럿의 블랙 오팔이 중심을 이루고, 딥 블루 사파이어와 라군 블루 파라이바 투르말린이 어우러져 깊고 푸른 색채를 완성했다. 4 워치와 하이 주얼리를 결합한 쏘프와 워치. 시계 모델은 브로치로도 변형되는 디자인으로, 피아제의 대담한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했다. 로즈 골드를 호안석이 아름답게 감싸는 디자인은 메종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5, 6 모델이 착용한 모습과 섬세한 제작 과정 스케치. 7, 8 ‘켄스 팝(Gems Pop)’은 1980년대 자유로운 색채로 주목받은 뮌헨 아트 컬렉티브를 향한 오마주를 담아냈다. 비대칭적 디자인과 생동감이 돋보이는 이 타이피스는 오렌지 어벤추린 다이얼과 만다린 가닛, 그리고 핑크 사파이어로 완성했다. 9 남프랑스의 깊고 푸른 밤을 화려하게 물들인 피아제 2026 하이 주얼리 쇼 피날레 장면. 10, 11 너무 아름다웠던 컬러 디너와 프랑스 디너 테이블. 12, 13 ‘골드 스월(Gold Swirl)’은 1970년대 특유의 곡선미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청록빛 바게트 컷 투르말린을 매치했다. 14 1970년대 빈티지 컬렉션 제품. 15 워치와 주얼리의 경계를 허무는 피아제의 특별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제작 스케치.

Special Interview

컬러의 존재감과 에너지로 피아제만의 미학을 완성하다

스테파니 시브리에르(Stéphanie Sivrière, 피아제 아트 디렉터)

먼저, 당신이 이끄는 팀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간 피아제에서 근무했고, 주얼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워치메이킹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모두 장인들로 마케팅과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워크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얼리 워크숍을 통해 골드의 물성을 알고 어떻게 다른 소재들과 같이 구성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저는 워치, 주얼리 디자인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워치 디자인자는 주얼리를 만들어보고, 주얼리 디자인자는 워치를 만들어봄으로써 영역을 넘나들도록 장려하며 의외의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피아제에 있어 컬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컬러는 감정이예요. 컬러로부터 시작하면 컬러를 조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떠올려보면 조금 다르죠. 제가 루비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블루 또는 핑크 사파이어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번 컬렉션을 공개하는 장소로 이곳, 남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곳을 선택했어요. 피아제는 남프랑스를 사랑합니다. 이브 피아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지중해의 색은 행복을 느끼게 하며, 다양한 컬러를 화사하게 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 컬러 오브 엑스트라레간자 컬렉션을 통해 가장 강조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은? 컬러 오브 엑스트라레간자는 이모션(emotion), 즉 감정이며,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게는 매우 자존감 높은 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컬러는 한 사람을 상징하는 캐릭터이며, 각각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보석 중 ‘이 스톤은 피아제 주얼리가 되어야 해!’라고 느낀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나요? 블루는 피아제의 상징적인 컬러입니다. 많은 블루 톤 보석이 컬렉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린과 블루는 중요한 자연의 컬러입니다.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죠. 이번에 오팔 컬러의 센터 스톤에 블루 사파이어 네크리스를 선보였는데 이것도 좋은 예입니다. 저는 컬러가 매우 높은 블랙 오팔이나 화이트 오팔을 만나면 ‘아, 이건 피아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안석도 매우 인상적으로 보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안석의 다양한 컬러가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컬러와 의외로 잘 어우러지는 데 때때로 이번에도 많은 컬렉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작품으로 이번 컬렉션을 설명한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작품을 선택하시겠어요? 호안석으로 만든 컬렉션을 선택하겠어요. 이는 주얼리와 시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매우 유니크한 컬렉션으로, 오너먼트 스톤을 체인으로 조각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이 진정한 피아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다면 페블 쏘프가 워치입니다. 오너먼트 스톤으로 펜던트와 워치를 하나로 만들었으며, 밖을 둘러싸고 있는 오너먼트 스톤과 워치 부분을 이루는 스톤을 찾아내 한 세트도 만들어낸 점이 역시 피아제답다고 생각될 거예요.

피아제는 대담하고 화려한 이미지로 연상되곤 합니다. 하지만 디렉터님도 ‘이건 너무 무모한가?’라고 고민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레인보우 컬렉션을 만들 때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컬러의 보석을 그라데이션으로 세팅해야 했고, 티타늄으로 매우 가볍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한 번이면 족한 컬렉션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 주얼리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젊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취향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가 하이 주얼리 디자인에 영향을 주나요? 피아제에도 점점 젊은 고객들이 주 고객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저 불링불링한 주얼리 시대는 지났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진정성과 진정한 차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장인 정신을 중요시합니다. 사부아-페르(savoir-faire, 독보적인 장인 정신)가 중요하죠. 그들은 남들



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번 컬렉션을 3개 단어로 정의한다면? Joy, Elegance, Surprise! 다음 컬렉션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있는지요? 제 머릿속에는 ‘Piaget woman, Piaget mindset, Piaget feeling, Piaget lifestyle’ 등이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만의 방향과 색깔을 확실히 찾았고, 정말 피아제스러운 것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독창적인 장인 정신과 예술성이 담긴 주얼리와 워치 메이킹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프랑스 망통 현지 인터뷰)



The Era of Elegant Modernity

유난히 뜨거웠던 파리의 6월, 강렬한 흑백사진과 찬란한 하이주얼리의 세계가 파리의 팔레 드 도쿄에 펼쳐졌다. <포멜라토, 혁신적인 주얼리 메종>의 오프닝을 기념하는 이 화려한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포멜라토를 재조명하게 했다. 생동감 넘치는 컬러, 대담한 볼륨, 장인 정신을 통해 밀라노 특유의 우아함을 선보이는 포멜라토의 하이주얼리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 시대 여성에 대한 오마주이자 멈추지 않는 혁신의 여정이다.



포멜라토의 첫 파리 전시

밀라노에서 영감을 받은 주얼리 디자인, 장인 정신, 컬러, 이미지,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혁신을 기념하는 포멜라토 최초의 파리 전시가 지난 6월 23일, 팔레 드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1967년 창립 이후 포멜라토가 여성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온 혁신의 여정을 조명한다. 아카이브 스케치와 아이코닉한 작품, 그리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한데 모은 이번 전시는 헬무트 뉴턴(Helmut Newton)과 스노든(Snowdon)부터 허브 리츠(Herb Ritts), 미셸 공트(Michel Comte)에 이르기까지 당대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해온 포멜라토와 사진 예술의 깊은 교감을 조명했다. 위대한 거장 사진작가들에게 캠페인을 맡긴 최초의 여성상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이다. 흑백으로 처리한 캠페인 사진,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과감한 포즈의 여

1 2026년 6월 23일 파리의 팔레 드 도쿄에서 열린 <포멜라토, 혁신적인 주얼리 메종> 전시회 모습. 왼쪽은 1971년 첫 번째 포멜라토 광고 캠페인 이미지. 잔 파올로 바르비에리 사진. 오른쪽 이미지는 1970년 포멜라토 아카이브. 2 파격적인 시도로 눈길을 끈 아카이브 속 강렬한 흑백 광고 비주얼. 3 올해 총 65점을 선보인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 컬렉션 전시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작품들도 함께 선보였다. 4 마치 레이스처럼 섬세하고 정교하게 세공한 화이트 골드 아라베스크 브레이슬릿. 빛을 머금은 듯 우아한 조형미가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5 금세공 장인의 손길과 미적 감각, 그리고 직관을 통해 탄생하는 힙노틱 세드(Hypnotic

성, 여성 주얼리 캠페인에 등장한 남성 모델 등 파격적인 사진들이 아름다움을 넘어 놀라움과 진한 여운을 안겨준다. 큐레이터 알바 카펠리에리(Alba Cappellieri)는 "1960년대 주얼리업계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포멜라토는 이러한 관습에서 벗어나 형태와 소재, 기법, 착용 방식,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혁신과 이를 탁월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풀어낸 사진가들의 작업에 대한 한정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전시는 포멜라토의 비주얼 아카이브와 헤리티지, 그리고 컨템퍼러리 컬렉션을 아우르는 몰입형 여정으로 선보였다.

자유로움을 스타일로 완성하다

2026년의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Pomellato Stile Libero)' 컬렉션은 포멜라토만의 생동감 넘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감각으로 현대적인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했다. 포멜라토의 CEO 사비나 벨리(Sabina Belli)는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는 포멜라토만의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한 하이주얼리입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창의성과 장인 정신이 담긴 특별한 이

아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강인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주체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여성을 위해 탄생했죠"라고 설명한다. 총 65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까사 포멜라토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통해 구현된 대담한 젤스톤 세팅, 정교한 골드 오픈워크 기법, 그리고 조각적인 볼륨감이 컬렉션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포멜라토의 정체성을 더욱 확연하게 보여준다. 또 다양한 형태와 컬러, 소재를 절제된 조합으로 우아하게 재해석했으며, 이를 포멜라토의 밀라노 금세공 전통에 뿌리를 둔 장인 정신으로 생생하게 구현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독창적인 장인 정신, 골드를 정교하게 세공해 빛과 공기가 흐르는 듯 완성된 입체적 구조, 젤스톤을 보다 자유로운 구성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세르티 리브레(Serti Libre) 기법, 그리고 예술가의 팔레트처럼 정교하게 구성된 컬러 큐레이션이 어우러져 포멜라토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와 완성도를 선보인 것. 포멜라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첸초 카스탈도(Vincenzo Castaldo)는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는 어떠한 틀에도 갇히지 않고, 다양한 기술과 장인 정신을 결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사방장입니다. 거침없이 표현되는 창의성과 절제된 미학, 그리고 사유를 담은 은은하지만 깊이 있는 '도발'을 담아냈습니다"라고 말한다.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는 '비저너리 컬러(Visionary Colors)', '마그네틱 골드(Magnetic Gold)', '힙노틱 세드(Hypnotic Shadows)'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각 테마는 브랜드가 추구해온 '자유'라는 근본적 가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적이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포멜라토의 견고한 아름다움

대표적인 혁신은 포멜라토 체인의 링크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메종은 기능적 요소에 불과했던 체인을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시그니처로 탈바꿈시켰다. 유연하고 감각적이며 조형적인 포멜라토의 체인은 전통적인 금세공 기술과 현대적인 영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장인의 손길로 정교하게 다듬어 견고한 체인이 피

부 위에서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완성했다. 조형적 볼륨 역시 포멜라토의 하이주얼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포멜라토 주얼리의 볼륨감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완성도 면에서는 더없이 탁월하다. 편안함과 감각적 아름다움, 그리고 디자인적 정교함이 어우러진 작은 조각 작품을 몸 위에 얹은 듯하다. 대담한 젤스톤으로 구현하는 컬러의 혁신은 포멜라토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요소다. 포멜라토가 곧 '컬러'라 할 수 있을 정도다. 메종은 원석의 위계질서를 과감히 깨고 독창적인 컬러 팔레트를 제시한다. 포멜라토의 세계에서 컬러는 예상치 못한 조합과 대담한 대비, 풍부한 형태감으로 생동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포멜라토의 아이콘인 '누도'를 필두로 한 혁신적인 것은 젤스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상징적인 카보숑 컷은 스톤을 들어 올려 빛을 받아들이게 하며, 피부 위에서 자연스럽게 숨 쉬듯 살아나게 한다. 헤리티지 컬렉션인 비잔티움과 모자이크부터 브랜드의 아이콘인 누도와 최상의 보석(Gemme Superlative)에 이르기까지, 포멜라토의 역사 전반을 관통하며 하이주얼리에서 정점을 이룬다.

여성을 위한 혁신, 'Pomellato for Women'

이번 행사에서 인상 깊었던 포멜라토의 가장 지속적인 혁신은 바로 '여성'에 대한 헌신이다. 창립 초기부터 포멜라토는 스스로 선택하는 여성을 위한 주얼리를 선보여왔으며, 그녀들의 독립성과 욕망, 성취감을 존중하는 주얼리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헌신은 2017년 브랜딩 50주년을 맞아 설립된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플랫폼인 'Pomellato for Women'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목소리를 확장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젠더 기반 폭력 근절 같은 동시대의 시급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초상은 'Pomellato for Women' 프로젝트에 함께해온 인물들을 기리는 동시에, 창립 이래 포멜라토에 영감을 불어넣어온 수많은 여성의 이야기와 정신을 담아내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따리 현지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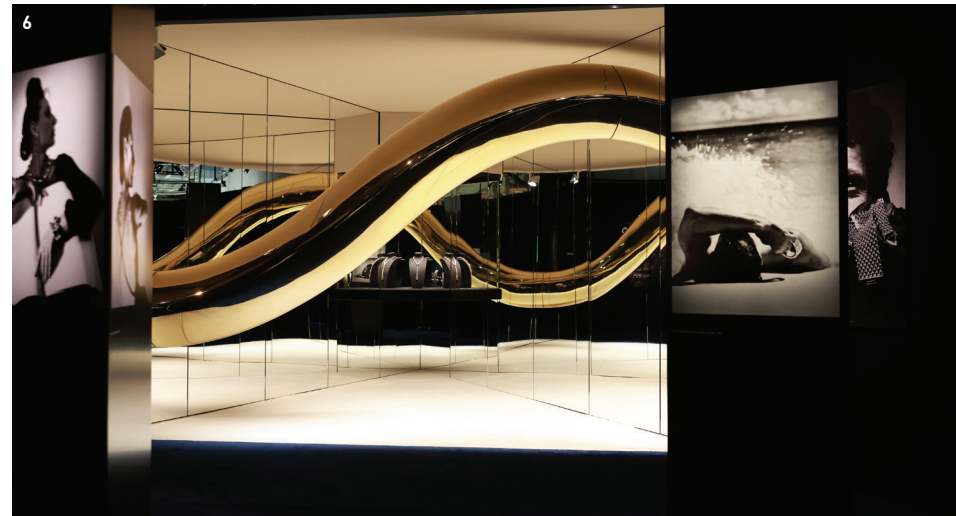
1967년 밀라노에서 탄생한 포멜라토는 유니크한 디자인, 컬러풀한 원석, 그리고 우아하면서도 전향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명성을 쌓아온 주얼리 브랜드다. 밀라노에 위치한 '까사 포멜라토(Casa Pomellato)'에서는 1백50명 이상의 숙련된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주얼리를 제작하며, 뛰어난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담아낸다. 포멜라토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0% 출처가 확인된 책임 있는 금을 조달하며, 유색 원석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신지 추적 감시하고 있다. 또 밀라노의 금세공 학교와 협업해 전통 장인 기술의 계승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Pomellato for Women' 캠페인을 통해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며, 여성의 강인함과 독립성, 그리고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포멜라토는 여러 유명 패션 가족 제품 및 주얼리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럭셔리 그룹 케어링(Kering)에 소속되어 있다.



Shadows) 라인의 아라베스크 로즈 골드 네크리스. 풍부한 볼륨을 통해 감각적인 크리에이션으로 완성했다. 6 포멜라토의 아이콘인 체인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조형물이 전시장 한편을 장식했다. 7 파리의 팔레 드 도쿄에서 포멜라토의 새로운 하이주얼리 컬렉션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컬러 다이나믹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전시회 모습. 8 미디어 아트와 함께 어우러진 당대 최고의 모델과 셀러브리티의 포멜라토 비주얼 전시 모습. 9 화이트 셔츠에 볼륨감이 돋보이는 포멜라토의 하이주얼리 세트를 착용한 모델. 일상과 함께하는 하이주얼리를 지향하는 포멜라토의 철학을 보여준다. 10 비저너리 컬러(Visionary Colors) 라인의 매혹적인 만다린 가넷 링. 11 스케치에서 출발해 완벽한 하이주얼리로 탄생하는 과정. 12 비저너리 컬러 라인 이어링 세트. 13 마그네틱 골드 라인의 '드레스주 카메오(Dressage Cameo)' 목걸이. 14 비저너리 컬러 라인 '드롭스 오브 파라이바(Drops of Paraíba)' 네크리스.

Shadows) 라인의 아라베스크 로즈 골드 네크리스. 풍부한 볼륨을 통해 감각적인 크리에이션으로 완성했다. 6 포멜라토의 아이콘인 체인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조형물이 전시장 한편을 장식했다. 7 파리의 팔레 드 도쿄에서 포멜라토의 새로운 하이주얼리 컬렉션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컬러 다이나믹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전시회 모습. 8 미디어 아트와 함께 어우러진 당대 최고의 모델과 셀러브리티의 포멜라토 비주얼 전시 모습. 9 화이트 셔츠에 볼륨감이 돋보이는 포멜라토의 하이주얼리 세트를 착용한 모델. 일상과 함께하는 하이주얼리를 지향하는 포멜라토의 철학을 보여준다. 10 비저너리 컬러(Visionary Colors) 라인의 매혹적인 만다린 가넷 링. 11 스케치에서 출발해 완벽한 하이주얼리로 탄생하는 과정. 12 비저너리 컬러 라인 이어링 세트. 13 마그네틱 골드 라인의 '드레스주 카메오(Dressage Cameo)' 목걸이. 14 비저너리 컬러 라인 '드롭스 오브 파라이바(Drops of Paraíba)' 네크리스.

“포멜라토 스틸레 리베로는 포멜라토만의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한 주얼리입니다. 자유롭고 강인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주체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여성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 사비나 벨리(Sabina Belli, 포멜라토 CEO)



“

‘레전더리 버드: 사파이어 에디션’은
희귀한 컬러 젬스톤과 하우스의 장인
정신을 통해 숭고한 자연을 표현하는
동시에 티파니앤코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The Legendary Bird

푸르른 잎사귀와 꽃 사이로 두 마리의 새가 날아든다. 티파니앤코는 새의 우아한 몸짓과 비상의 찰나를 포착해 하이 주얼리로 승화시켰다. 바로 ‘레전더리 버드: 사파이어 에디션(Legendary Bird: The Sapphire Edition)’ 이야기다. 블랙 오팔과 사파이어, 진주, 다이아몬드, 루비의 조화로 자연의 생명력과 풍부한 색채를 브로치에 담았으며, 그 안에는 티파니앤코만의 대담한 상상력과 장인의 헌신,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섬세한 기술력이 고스란히 깃들여 있다.

주얼리 디자이너에게 자연은 언제나 가장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다. 하늘과 대지, 그 안에서 살아 숨 쉬는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품은 가장 안정적인 존재이자 변함 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다. 자연의 유기적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세공 기술이 필수다. 즉 자연을 닮은 주얼리를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하우스의 기술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여정이라는 의미다. 오늘날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들은 자마다의 방식으로 자연을 품고 있다. 티파니앤코 역시 지구 위 모든 생명을 숭고한 존재로 바라보며, 자연의 산물인 원석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하우스의 전설적인 보석 디자이너 잔 솔렘베레는 자연의 형태와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어 수많은 주얼리를 남겼으며, 그중에서도 새의 우아한 몸짓을 표현한 버드 온 어 락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의 예술적 유산은 매년 공개되는 히든 가



1 옐로 골드 및 플래티넘 소재에 오팔 컷 사파이어와 블랙 오팔, 자개, 루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레전더리 버드: 사파이어 에디션(Legendary Bird: The Sapphire Edition)’ 브로치. 2 버드 온 어 락을 재해석한 2026 히든 가든 여름 컬렉션의 파라다이스 버드 브로치는 후추산 불더 오팔과 크리스프레이즈, 스페시르틴 등으로 극락조를 표현했다. 3 가공하지 않은 파이어 오팔 1개, 차보라이트, 오팔 및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026 히든 가든 봄 컬렉션의 파라다이스 버드 브로치. 4 쿠션 컷 아라마란이 인상적인 2026 히든 가든 봄 컬렉션의 버드 온 어 락 브로치는 네크리스로도 활용 가능하다.



든 컬렉션과 단 1점만 제작되어 더욱 특별한 레전더리 버드 시리즈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공개된 ‘레전더리 버드: 사파이어 에디션(Legendary Bird: The Sapphire Edition)’은 1965년에 처음 선보인 버드 온 어 락의 유산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티파니 디자인 스튜디오(Tiffany Design Studio)와 티파니앤코 수석 부사장이자 예술감독 나탈리 베르데유(Nathalie Verdeille)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는데, 그는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플로렐 모티브는 20세기 초 티파니 스튜디오의 상징적인 파브릴(Favrile) 유리 램프에 등장한 오키드 디자인에서 영감받았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롭게 피어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브로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정밀한 커팅과 베젤 세팅을 거쳐 완성한 구근식물과 난을 닮은 플로렐 모티브, 그리고 그 위로 날아드는 벌새가 작품의 핵심입니다.” 희귀한 컬러 젬스톤과 오랜 시간 축적된 장인 정신이 응축된 이 작품은 새의 유려한 실루엣을 정교하게 구현하며 티파니앤코의 디자인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희망과 성공을 상징하는 새와 꽃을 중심으로 브로치에는 34.48캐럿과 6.04캐럿의 스리랑카산 오팔 컷 사파이어 2점이 세팅되어 있다. 그 주변을 여러 겹으로 감싼 블랙 오팔 더블컷 잎사귀는 색감과 입체감을 더하며, 꽃을 향해 날아든 두 마리의 벌새는 자개와 루비, 다이아몬드의 조합으로 금방이라도 날갯짓할 듯한 생동감을 전한다. 깃털의 형태와 결까지 세밀하게 재현한 디테일은 실제 생명체를 마주한 듯한 경이로움까지 선사한다. 자연의 생명력과 하우스의 장인 정신이 교차하는 이 작품은 하이 주얼리의 경계를 넘어, 시간을 초월한 예술 작품으로 자리한다. 문의 1670-1837 에디터 김하얀



New Jewelry Chapter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 북촌 푸투라서울에서 3주간에 걸쳐 열린 반클리프 아펠 후원, 레폴 주얼리 스쿨(L'ÉCOLE Jewelry School) 서울 캠퍼스가 막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첫 캠퍼스로 주얼리 역사와 젬스톤 제작 기법 등 1백여 개가 넘는 세션과 2개의 특별 전시를 선보이며 한국 대중에게 주얼리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뜻깊은 여정이었다.



2012년 설립된 레폴 주얼리 스쿨은 강의, 워크숍, 전문가와의 대화, 전시, 서적, 팟캐스트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얼리 문화의 정수를 대중에게 소개해온 교육기관이다. 미술사학자, 보석학자, 장인의 현장 지도 아래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파리를 시작으로 홍콩, 상하이, 두바이에 자리한 네 곳의 상설 캠퍼스 외에도 세계 주요 도시에서 1~3주에 걸친 순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올해 국내 최초로 무려 3주간 운영되었으며, 지난 7월 15일 평소 주얼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주얼리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레폴 주얼리 스쿨에서는 총 8개의 유료 강의를 개설했으며, 각 강의당 수업 형태에 따라 8명에서 많게는 12명의 소수 인원으로 매우 밀도 높게 진행되었다. 대표 수업으로는 ‘하이 주얼리에서의 구아슈 1: 빛’, ‘주얼리 기법 체험’, ‘루이 14세부터 아르데코 시대까지 이어지는 주얼리 역사’, ‘주얼리가 지닌 특별한 힘: 아몰렛, 부적, 럭키 찜’, ‘루비, 불꽃처럼 강렬한 젬스톤’ 등이 있었다. 보석 입문자는 물론 경험 많은 보

1 레폴 한국 캠퍼스 개실을 기념하는 특별 상설 전시, <에메랄드 정원 - 원석의 발견>. 2, 3, 4 직접 주얼리 드로잉과 제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레폴 한국 캠퍼스의 주얼리 제작 프로그램. 5 레폴 프로그램이 이뤄졌던 푸투라서울 내 강의 공간. 6 상설 전시 공간에 전시되었던 에메랄드 원석.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3주간의 프로그램에서는 레폴 주얼리 스쿨의 하이라이트인 주얼리 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인 정신 워크숍(Savoir-faire Workshops)’도 이뤄져 더욱 풍성한 배움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했다. 또 6~16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과 주얼리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 토크 세션도 마련되었다. 강사들의 전문 교육 아래 주얼리에 대한 잠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주얼리 세계로 첫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과 주얼리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는 토론의 장이었다. 반클리프 아펠은 지속적으로 ‘레폴 주얼리 스쿨’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얼리에 대한 이해와 주얼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레폴 주얼리 스쿨은 전승, 공유, 탐구를 바탕으로 자유로움과 지성, 폭넓은 감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어 누구나 주얼리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넓혀갈 것이다. 또다시 한국에서 레폴 주얼리 스쿨이 열릴 날을 고대해본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경민



Get



PRADA
동시대적 미감을 담은 가로로 긴 직사각 셰이프와 내구성이 뛰어난 사피아노 레더가 특징인 미디어 사이즈 갤러리아 백. 30×14×10cm,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The



QEELIN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조롱박 모양의 자개 울루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한 브찌울루 이어링 4백17만원
키린 문의 02-3479-1962

List



HERMÈS
비비드한 핑크 컬러와 아이코닉한 켈리 바글, 4cm의 안정적인 굽, 날렵한 앞코가 아우라친 랩 스킨 소재 슬링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가장 뜨거운 계절의 한가운데에서 더없이 선명하게 빛나는 찰나.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JEONG SEOK HEON



GRAFF
볼드한 링크와 총 1.86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패션 라지 체인 네크리스 1억2천4백60만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CHANEL FINE JEWELRY
브랜드를 상징하는 쿼트 패턴으로 간결하면서도 클래식한 맛을 전한다. (위부터 차례대로)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미니 브레이슬릿, 하나만으로 존재감이 확실한 베이지 골드 브레이슬릿, 쿼트 패턴 중앙을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베이지 골드 라지 링 모두 코코 크리쉬 컬렉션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TAG HEUER
틸 그린 컬러 다이얼과 실버 투톤 플랜지, 레드 팀 GMT 핸드가 조화롭다. 인하우스 무브먼트 TH31-03을 장착해 약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까레라 데이트 트윈 타임 7백27만원
태그하이어 문의 02-3479-6021



BOUCHERON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블랙 PVD 등 소재가 다른 밴드가 모여 하나의 링을 이루는 콰트로 블랙 다이아몬드 라지 링 가격 미정
부쉐론 문의 080-822-0250



HUBLOT
파스텔컬러 블로킹 디테일이 경쾌한 무드를 선사한다. 스텔레온 다이얼을 품은 42mm 세라믹 케이스와 베젤을 6개의 H형 티타늄 스크루로 장식하고, 스카이 블루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빅뱅 샘머 멀티 컬러 세라믹 4천9백70만원대
위블로 문의 02-540-1356
에디터 김하얀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Mandarin Oriental, Milan)

팔라초의 기억을 잇는 현대의 럭셔리

폭염이 살짝 누그러진 듯한 7월의 싱그러운 오후, 레스토랑과 바, 녹음 짙은 코트야드를 아우르는 만다린 가든에 들어섰다. 검은 대리석 위에 놓인 새초롬한 석류빛 칵테일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eth)'. 남아프리카의 가든 루트에서 영감을 받은 한 잔은 아몬드 인퓨즈드 코냑과 루이보스·히니부시 슈럽(shrub), 히비스커스 워터, 세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해안 풍정의 깊이와 생기를 담아낸다. 섬세한 빛과 재료의 질감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첫 모금을 머금자, 밀라노 도심의 분주함은 한 겹 멀어지고 도시의 시간이 천천히 느려진다.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가 선사하는 작은 마법의 시작이다.

밀라노의 대표적인 거리인 만초니 거리(Via Manzoni)에서 한 블록 안쪽, 안데가리 거리(Via Andegari)에 자리한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 이곳은 세계적인 오페라 성지 스칼라 극장과 명품 쇼핑 거리 몬테 나폴레오네, 밀라노의 상징 같은 두오모가 가까운 도시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오래된 팔라초의 기억과 현대적인 감각이 놀라울 만큼 고요하게 공존한다. 저녁이 되자 만다린 가든은 또 다른 온도를 보여주었다. 미슐랭 2 스타 셰프 안토니오 구이디가 선보이는 이탈리아 요리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섬세한 현대성을 품고 있었다. 특히 부드럽게 익힌 문어와 민기 어려울 만큼 매끄럽고도 찰진 메시트포테이토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재료의 본질과 완성도에 집중한 한 접시였다. 이 공간에서 경험하는 미식은 밀라노의 우아한 균형감을 닮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만다린 가든의 코트야드는 전혀 다른 표

정을 보여주었다. 초록으로 둘러싸인 중정과 시간의 결이 남은 건축 사이에서 맞이하는 아침의 여유와 차분함은, 이곳이 밀라노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했다. 코트야드 벽면에는 과거 롬바르디아 지방의 문장이 고아하게 남아 있었다. 장식으로 덧댄 요소가 아니라, 이 공간이 담아온 역사의 흔적이다. 밀라노 팔라초가 품은 사적인 정원과 안뜰의 분위기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어진다.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의 특별함은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대신, 유서 깊은 팔라초가 간직한 기억과 구조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곳은 18세기 귀족 저택이었던 팔라초 콘팔로니에리(Palazzo Contalonieri)를 포함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닌 4개의 건축물을 하나의 공간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다. 긴 세월 속에서 도시의 삶과 변화를 담아온 이 건축물들은 한때 금융 기관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는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의 외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이 2015년 이탈리아 최초로 선보인 호텔로, 총 1백4개 객실을 운영한다. 2 코트야드와 실내 다이닝이 이어지는 만다린 가든. 이탈리아 모던 디자인과 동양적 터치가 조화를 이루는 다이닝 바 & 레스토랑이다. 중정 한쪽 '라 로자(La Loggia)'에서는 더욱 사적인 알 프레스코 다이닝 경험을 선사한다. 3 만다린 가든의 칵테일 메뉴 '미라빌리아(Mirabilia)'에 포함된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eth)'. 4 이탈리아 근대 건축과 디자인을 대표하는 가장 조 폰티에게 헌정된 100㎡ 규모의 '디자이너 스위트'. 5 150㎡ 규모의 아파트먼트 콘셉트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 높은 층고와 통창으로 들어오는 풍부한 자연광, 대형 욕실을 갖춘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6 이탈리아 디자인 아틀리에 포르나세티(Fornasetti)의 감성이 반영된 세타(Seta)의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 살레타 두오모(Saletta Duomo). ※ 1~3, 5, 6 이미지 제공_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 그 안에 남아 있는 건축적 질서와 공간의 가치를 동시대의 언어로 다시 풀어냈다. 이 작업을 맡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치테리오와 파트리시아 비엘이 이끄는 이탈리아 대표 건축 스튜디오 ACPV는 팔라초의 역사적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밀라노 특유의 절제미와 현대적인 호스피탈리티를 결합했다. 역사적 구조와 새로운 재료, 전통적인 비례감과 현대적 기능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호텔이 보여주는 이탈리아식 럭서리의 본질이다. 객실로 향하는 순간,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가 말하는 럭서리의 방식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 호텔은 화려함보다 균형과 질감, 그리고 머무는 사람을 위한 편안함에 집중한다. 이탈리아 특유의 절제된 감각과 섬세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객실은 팔라초가 지닌 사적인 주거 문화를 현대적인 공간으로 확장한다. 특히 호텔은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들과 연결되는 여러 시그니처 스위트들을 선보인다. 그 가운데 20세기를 풍미한 밀라노 출신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조 폰티(1891~1979)에게 헌정한 '디자이너 스위트'는 1950년대 이탈리아 디자인의 정수를 담고 있다. 질은 블랙 월넛의 나뭇결과 네이비 블루 텍스타일이 어우러진 인테리오는 차분하면서도 선명한 개성을 드러낸다. 정제된 선과 균형 잡힌 비례, 가구와 오브제의 섬세한 조합은 밀라노를 사랑했던 폰티가 추구한 '일상의 아름다움'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호텔 경험으로 엮어낸다.

'포르나세티 스위트'는 장식 예술가이자 디자이너 피에로 포르나세티(1913~1988)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공간 안으로 끌어들었다. 독특한 패턴과 오브제가 어우러진 이곳은 컬렉션 룸처럼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을 자극한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넓은 아파트먼트의 감각으로 밀라노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높은 층고와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자연광, 전용 주방과 사우나·스팀 룸, 브라질산 푸른 대리석으로 마감한 욕실은 물론, 방 하나를 옮겨놓은 듯 규모 큰 욕조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완성한다. 이번에 머문 주니어 스위트 역시 이러한 공간 철학을 정갈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과장된 장식 대신 섬세한 소재와 균형 잡힌 비례, 차분한 색상으로 완성된 공간은 도시의 역사와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정제된 선과 은화한 결이 흐르는 복도를 따라 걷노라면, 이곳이 단순히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한 호텔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곡선으로 이어지는 창과 섬세한 철제 디테일, 벽을 담백하게 수놓은 액자, 빛이 머무는 방식까지,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과거의 건축 언어와 오늘의 감각 사이에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 조 폰티는 〈건축예찬〉에 '과거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물이 훌륭하게 동시에 존재할 뿐이다'라고 썼다.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는 바로 그 동시성을 현대의 공간에서 찾아낸다. 글 고성연(밀라노 현지 취재)



EUROPEAN UNION

유럽에서 온 육류 & 가공육

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ENJOY
IT'S FROM
EUROPE



달마틴스키 프르슈트(Dalmatinski Prsut) PGI, 크로아티아



프로슈토 디 파르마(Prosciutto di Parma) PDO, 이탈리아



목초 사육 소고기(Irish Grass Fed Beef) PGI, 아일랜드



키에우바사 리시에츠키(Kielbasa Lisiecka) PGI, 폴란드

오랜 생산 노하우와
전통으로 키워낸
유럽산 육류 제품은
뛰어난 품질을
약속합니다.



원산지 명칭 보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 보호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즐기세요,
유럽에서 왔습니다!

정성껏 가공한 햄, 깊은 전통을 이어온 샤퀴트리, 그리고 최고 품질의 신선한 소고기. 유럽산 육류 제품은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 아래 생산된다.

유럽연합 품질 인증 로고는 이러한 품질과 가치를 상징한다.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인증은 지역 고유의 전통과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검증된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보증한다.

숙성 햄과 목초 사육 소고기는 오랜 시간 유럽의 식탁을 지켜온 대표적인 식재료이며 전통과 장인 정신, 엄격한 품질 기준이 어우러져 유럽 육류 특유의 깊은 풍미와 가치를 전한다.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enjoy-its-from-europe.campaign.europa.eu/south-korea/ko>



캠페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캠페인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EUAgriFood_Korea

Dearly Beloved

설렘, 약속, 아름다움. 신부를 위해 아껴두었던 단어들이 꽃피는 순간.

PHOTOGRAPHED BY **KIMSUNHYE**

1920년대 미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1921년 모델을 재해석한 타임피스로, 지름 40mm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루 인덱스와 핸즈로 완성한 그레이н 실버 톤 다이얼을 매치해 우아한 품격을 자랑하는 히스토리 아메리칸 1921 6천9백50만원대 **바세론 콘스탄틴**.

로마의 산 카를로 알레 렉트로 폰타네 성당의 돔과 부스카 로콜로 성 정문 위의 장미 창, 베네치아 도제 궁전 기둥 꼭대기 장식에서 영감을 받은 오페라 툰레 링. 핑크 골드 에 오닉스를 세팅해 완성했다. 1천3백만원대 **부엘라티**.

사랑하는 이와의 아름답고 소중한 약속의 의미를 담은 노트 컬렉션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 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티파니 노트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드름
폴리싱 효과를 적용한 화이트 골드
밴드와 블랙 PVD 소재로 완성한 클루
드 파리 밴드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드로
블랙 라지 웨딩 밴드 6백만원대, 파리를
상징하는 클루 드 파리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가
어우러져 모노크롬 광채를 선사하는
파드로 레디언트 클루 드 파리 웨딩 밴드
9백만원대 모두 **부채분**. 18K 옐로 골드에
포스텐 모티브의 버클 부분에만 20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포스텐 미디엄
링 6백50만원대, 18K 핑크 골드 소재의
포스텐 미디엄 링 4백74만원 모두 **프레드**.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 8의 곡선을 본떠 완성한
올루 모티브의 솔리테어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올루 미니 솔리테어 링
3백1만원 **키린**.

매혹적인 카리사 꽃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한
18K 화이트 골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페어·마키즈 컷
다이아몬드 총 3백65개,
11.6캐럿을 세팅한 카리사
다이아몬드 드롭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위부터) 볼륨감 있는 곡면의
기하학적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광채와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이코니카 다이아 카테일 링,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 파베
링크가 리드미컬하게 교차하며
손목에 감렬한 존재감을 불어넣는
이코니카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위부터 차례대로) 18K 옐로 골드에
0.49캐럿 다이아몬드 76개를 풀
파베 세팅한 버클 모티브와 옐로
골드 태슬로 이뤄진 포스텐 품품
이어링, 볼륨감 넘치는 18K 화이트
골드 포스텐 버클 모티브 센터에
0.25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0.5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 2.05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8개를 풀 파베
세팅한 포스텐 셀레브레이션 링
모두 가격 미정 **프레드**.
숄더 패드와 테일러드 디자인이
클래식한 매력을 자아내는 트윈드
스타일의 화이트 실크 나테 아이콘
재킷 7백60만원 **셀린느**.



각 면에 반사되는 풍부한 빛이 특징인
정육면체의 아이스 큐브 모티브로
완성한 18K 화이트 골드 아이스 큐브
브레이슬릿 1천13만원 **쇼파드**.



현대 여성을 위한 마린 컬렉션 워치로, 바다를 연상시키는 블루 컬러
다이얼을 매치하고 아워 마커와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매력을 더한 마린 레이디 9518 4천63만원 **브레게**.

(위부터 차례대로) 매종민의 특별한 금세공 기법으로 완성한, 18K 로즈 골드에 1백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36캐럿을 세팅한 포제션 디고 펠리스 펜던트 1천6백만원대 **피아제**, 여러 가지의 화이트 골드 스카드를 장식스럽게 짜서 성세한 매시 텍스처를 완성했으며,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화려함과 볼드함을 부여한 마이 디올 카프 미장 디올 **파인주얼리**, 약장각형의 플레티엄 밴드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플라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LV 다이아몬드 파베 디올 링 4천2백90만원, 폴 모티어의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옴브로 블러쉬 오픈 링 1천1백5만원 모두 **루이 비통**, 화이트 골드 밴드에 매종의 금세공 기법으로 완성한 옐로 골드 장식 모티브가 매력적인 다이아몬드 세팅 마크로 옴브로 브레이슬릿 7천2백만원대 **부채판티**, 볼드하고 독특한 화이트 골드의 체인형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쏜 무브 맥스 와이 주얼리 폴 파베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나엘 프랑켈 by 조우 브라이얼**.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로즈 골드 밴드에 터퀴이즈, 소달라이트, 듀모티어라이트,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줄짜리 밴드의 포제션 바이브런트 펠리스 링 1천5백만원대, 18K 로즈 골드에 터퀴이즈, 소달라이트, 듀모티어라이트,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바이브런트 펠리스 링 6백만원대,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자체 제작 1110P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피아제 홀로 시그니처 데이트 워치 2천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6mm 스틸 케이스에 500P1 자체 제작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피아제 홀로 시그니처 데이트 워치 3천5백만원대, 메종만의 데코 펠리스 패턴으로 완성한 18K 화이트 골드의 포제션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 밴드에 1백1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2.64캐럿과 1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09캐럿을 세팅해 완성한 포제션 브레이슬릿 6천9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지름 30mm 문사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린 다이얼을 매치하고 베젤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6천7백만원대 **오메가**.

(위부터 차례대로) 승마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는 등자 모양 클라스프가 특징인 카프 스킨 및 메탈 소재의 에트리에 브레이슬릿 60만원대, 아이코닉한 스타드 모티브인 메두르 메탈 장식과 베이지 카프 스킨으로 완성한 아테나 브레이슬릿 1백4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옐로 골드 케이스에 선바스트 루즈 아쉬 컬러 다이얼과 같은 컬러의 스위프트 카프 스킨 소재 롱 스트랩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케이프 코드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깊이 파인 V넥과 칼라 디테일이 돋보이는 롱 슬리브 맥시 드레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메종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버드 온 어 락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네크라스로, 플래티넘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새 모티브에 옐로 골드 디테일로 완성한 티파니 버드 온 어 락 버드 펜던트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0.71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센터 스톤으로 세팅하고, 그 주변에 총 0.05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8개를 파베 세팅해 완성한 솔리테어 링 1천5백만원대 **쇼파드**.



(위부터 차례대로) 메종의 시그니처인 패시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이트 골드 이어링으로, 총 727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84캐럿을 세팅해 완성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이어링 2천2백32만원, 화이트 골드에 총 2백95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12캐럿을 세팅해 목선을 따라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는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네크라스 8천3백49만원 모두 **그라프**, 시퀸 소재 브라 톱과 플리츠 디테일이 돋보이는 화이트 맥시 드레스 가격 미정 **포츠 1961**.



(왼쪽부터) 클래식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감성을 동시에 전하는 아이코닉한 워치로, 지름 28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고정된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J12,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시그니처 숫자 5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감성을 전하는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숫자 5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이터널 N5 이어링,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숫자 5 모티브에 드롭 스타일로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화려함을 더한 이터널 N5 네크라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깃이웃 디테일이 돋보이는 옐로 골드 소재 블랙 드레스 1천8백만원대 **에르메스**.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옐로 골드 소재의 볼륨감 넘치는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별 모티브 8개로 완성한 수 레 제두왈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개의 페어 컷 블랙 옆닉스 1.15캐럿을 센터에 세팅하고 18K 옐로 골드 비즈로 장식한 세팅 보렘 옆닉스 스몰 링 3백35만원, 화이트 머더오브펠 1.4캐럿과 18K 옐로 골드 비즈로 완성한 세팅 보렘 머더 오브 펠 스몰 링 3백35만원 모두 **부쉐론**, 여성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꽃을 모티브로 한 링으로,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를 센터에 세팅한 미모사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핑크 골드 소재에 화이트 자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컬러 블라썸 미니 스타 링 4백80만원대, 핑크 골드에 커널라인과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컬러 블라썸 미니 선 링 5백20만원대, 옐로 골드에 소달라이트와 다이아몬드를 더한 컬러 블라썸 미니 스타 링 5백70만원대, 플래티넘 소재에 하우스의 상징적인 별 모양 모노그램 플라워를 연상시키는 53면 컷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하고,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완성한 LV 다이아몬드 파베 솔라테르 링 4천3백70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벌룬 세이프의 홀터넥 코튼 포플린 드레스 가격 미정 **알라리아**.



(위부터) 3개의 밴드로 이뤄진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1개를 중앙에 세팅하고 그 주위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디바인 에니그마 하이 주얼리 파베 링, 2개의 물방울 모티브가 마주 보고 있는,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다스코 펠세이션 투아 에 루아 하이 주얼리 링 모두 가격 미정 **메시카**.



(왼쪽부터) 18K 핑크 골드 소재의 3개 밴드로 완성하고, 꼬임 디테일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으며, 포스텐 모티브의 바클이 조화를 이루는 포스텐 라이즈 링 1천10만원 **프레드**, 다이얼을 둘러 두 가지 디자인으로 착용 가능한 아이코닉한 워치, 40.1×20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위아래 2줄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특별함을 더한 리베르소 윈 듀에도 4천만원대 **에거 르콜트르**.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모델 **타타(TATA, 아워커버스 에이전시)**
어시스턴트 **김지현**
에디터 **성정민**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블랑팡 02-3479-1833
티파니앤코 1670-1837
부셀라티 02-6905-3490
키린 02-310-5189
포멜라토 0030-8321-0441
그라프 02-2150-2320
프레드 02-514-3721
브레게 02-6905-3571
셀린느 1577-8841
피아제 1877-4275
다울 타임피스 & 파인주얼리 02-3480-0104
메시카 02-3479-1556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오메가 02-6905-3301
에르메스,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발렌티노 02-2014-4655
쇼파드 02-6905-3390
프초 1961 +39 02-3926-3481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080-805-9628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부쉐론 080-822-0250
다미아니 02-515-1924
루이 비통 02-3432-1854
알라리아 02-3479-1540
에거 르콜트르 1877-4201

지름 25mm 스텔 케이스에 밀라니즈 메시 브레이슬릿을 매치하고 5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CD 인그레이션 스텔 크라운, 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이 고급 실크 라본의 부드러움과 광채를 표현하는 라 디 드 디올 사티느 타임피스 가격 미정 **다울 타임피스**.



Elegance in Ease

편안함은 물론 스타일까지 챙겨주는 데일리 슬라이드.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편안한 슬라이드 디자인에 입체적인 LV 이니셜 시그니처 로고 장식과 스테인 디테일이 특징인 스웨이드 숏아프자즈 소재의 롤라리도 플러스드
를 1백80만원 **롤리 바틀** 문의 02-3432-1854. 브렌드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마넛한 디자인의 샌들로 소프트하게 패딩 처리한 라인 스트랩이 시트유
실루엣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다면 소재로 완성한 H 컷이로 디테일이 돋보이며, 1원화 장식을 전하는 오리
문의 02-6200-7799. 클래식한 디자인에 카프 스킨으로 만든 디테일로 단조로움을 떨어낸 롤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080-805-9628. 행한 레드 컬러로
특히 카장을 두어하는 환경 인증 PVC 소재의 펠리 베이 샌들 9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실크 소재에 크리стал 포인트 편안함과 스테일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슬라이드 비브 플 그린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문의 02-3449-0442 에디터 **성정민**

아시스트 김지현

Natural Breeze

라피아, 라틴, 아자 섬유 등 식물성 섬유를 엮어 완성한 스트로백은 특유의 구조와 결로 한층 활기차고 시원한 분위기를 풍긴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레드 트림 로고를
엮은 둥근 실루엣의 원더 위커 호보 백.
22×16×8cm,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특징이며, 조절 가능한 숄더
스트랩이 달린 라피아 소재 카놀이 버킷
백, 15×19×15cm, 2백80만원 **질 샌더**.
문의 02-6905-3530. 내추럴한 라피아
소재에 손쉬운 오픈·클로징이 가능한
드로스트링 디테일과 체인 스트랩을 적용한
샤넬 25 미니 핸드백, 22×22×10cm,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알고 유명한 라피아 소재를 정성스럽게
엮은 후 카프 스킨 핸들로 장식한 파니에
백, 30×20×13cm, 4백45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굵고 단단한 라틴으로
완성한 바스켓 실루엣에 둥글게 마감한
카프 스킨 상단 디테일로 우아함을
강조했다. 골드 컬러의 양방향 지퍼와 참
장식이 돋보이는 엑스트라 소프트 백 L33.
27×17×10cm,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모로코의 전통
기법인 카누티요 기법으로 위빙했으며,
독특한 포천 쿠키 디자인이 남다른 미디엄
스왈 백, 34×20×8cm,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에디터 **김하얀**

아시스트 김지현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겔랑 아베이 로알 더블 R 리뉴 앤 리페어**
어드밴스드 세럼 화이트 허니와 AHA, PHA를 함유해 자극 없는 각질 제거를 돕고, 모공을 케어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광채 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50ml 30만5천원. 문의 080-343-9500 **시세이도 얼티무 세럼** 중천 제품보다 피부 장벽을 빠르게 개선하고 피부 톤과 결을 균일하게 케어한다. 이 모든 효과는 발효 카멜리아 추출물 덕분이다. 50ml 18만원. 문의 080-564-7700 **시슬리 에컬씨옹 에컬로지크 어드밴스드 포뮬라** 수분과 영양이 가득한 에센스 로션. 병을 일 추출물, 인삼 추출물, 로즈메리 잎 추출물 등 식물 유래 성분을 담아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해준다. 125ml 가격 미정. 문의 080-549-0216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2012년 처음 공개된 후 꾸준히 진화 중인 제품. 새로운 캐비아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성분과 펩타이드, 히알루론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한다. 50ml 1백14만8천원대. 문의 02-6390-1170 **크리스찬 디올 뷰티 프레스티지 라 쏘루씨옹 퀴미에르 액티베이터드 세럼** 민감한 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 & 일루미네이팅 세럼으로, 로사팰타이드™ 화이트를 함유해 노화로 인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다크 스팟 등 결점을 완화해 균일한 톤을 선사한다. 30ml 79만5천원. 문의 080-342-9500 **클레드뵘 보떼 어드밴스드 인텐시브 나이트 크림** 독자적인 브라이트닝 성분 4MSK가 눈에 띄는 다크 스팟과 칙칙한 안색을 개선하고, 비터 오렌지 꽃 추출물이 밤사이 지친 피부에 활력을 더한다. 50ml 22만원. 문의 080-564-7700 **샤넬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 바닐라 플레니폴리아를 함유해 수분 공급부터 탄력 증진, 광채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50g 39만5천원. 문의 080-805-9638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멀티-리커버리 콤플렉스** 일명 갈색범으로 불리며 여러 세대를 거쳐왔다. 효모 추출물과 펩타이드, 식물 유래 성분을 혼합한 크로노록스™ 파워 시그널 테크놀로지가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고 탄력과 모공, 피붓결까지 케어해 더욱 건강한 컨디션으로 끌어올린다. 50ml 20만원. 문의 6971-3212 에디터 **김하얀**

Lasting Icons

뷰티에도 엄연히 스테디셀러가 존재한다. 트렌드가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반영한 독자적 성분과 그에 따른 확실한 효능으로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수년간 사랑받으며 세대를 거듭해온 스킨케어 중 단 몇 가지만 엄선했다.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에스티로더 김하얀

The New Ritual

한층 진화한 데일리 스킨케어. 피부 고민에 맞춘 디바이스가 집에서도 전문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해, 새로운 뷰티 루틴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트리폴라 STOP VX2** 세 가지 멀티 RF(Multi Radio Frequency)와 어댑티브 DMA, 터보 RF 및 열 매핑 기술로 탄생한 스킨케어 홈 디바이스. 피부 진피층에 에너지를 고르게 전달해 탄력 케어를 돕는다. 1백18만원. 문의 080-246-1234 **필케어 트윈업 리프팅기** 국내 최초 6단계 EMS 미세 전류와 레드 LED(Red LED, 630nm)를 적용한 두피·페이스 케어 디바이스. 두피부터 턱 라인까지 탄력 케어를 지원하며, IPX7 방수 등급으로 샤워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11만9천원. 문의 02-6394-7000 **툼 더 글로우 시그니처** 에스텍에서 사용하는 물방울 초음파(LDM) 기술과 3MHz·10MHz 이중 교차 초음파를 적용했다. 피부 표피와 진피층에 동시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탄력과 보습, 광채 케어를 선사한다. 59만9천원. 문의 1800-6307 **메이크온 온페이스 LED 마스크** 아모레퍼시픽의 80년 피부 과학 노하우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이강재 교수가 개발한 LED 특허 기술을 결합한 프리미엄 마스크. 피부에 균일한 마이크로 LED 광원을 전달해 탄력과 톤 개선은 물론 피부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080-023-5454 **다이스 슈퍼스닉 뉴럴 헤어드라이어** 뉴럴(Nural™) 센서 기술과 두피 보호 모드를 적용한 헤어드라이어. 머리와 기기의 거리를 감지해 모발에 가까워질수록 열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편안하고 일관된 두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59만9천원. 문의 1588-4253 **필립스 사티넬 에센셜 모근 제거기** 0.5mm의 짧은 체모까지 제거하는 모근 제거기. 인체공학적인 커브형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림감을 제공한다. 2단계 속도 조절과 빌트인 라이트를 적용해 털 굵기에 맞춘 꼼꼼한 제모를 지원하며, 최대 4주간 제모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80-600-6600 **LG 프라엘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 고주파(RF)와 EP, EMS, MC를 동시 출력하는 얼티 뷰티 디바이스. 다섯 가지 케어 모드로 광채와 탄력, 모공은 물론 이중턱과 눈가까지 맞춤형 케어를 지원한다. 59만9천원. 문의 080-023-7007 에디터 **신정임**



크리스찬 디올 뷰티 뮤티드 로즈 컬렉션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064 렉키 마호가니 쏘폰한 글로스 텍스처로 밀착력과 발색력 모두 좋은 편이며, 여름날 태닝한 피부에도, 하얗고 뽀얀 피부 톤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로즈 컬러가 특징이다. 6ml 5만2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EX 계절을 불문하고 건강한 피부의 기본은 충분한 수분. 시카 성분에 히알루론산과 판테놀 등을 더해 피부 진정은 물론 끈적임 없는 촉촉한 수분감을 기대할 수 있다. 70ml 3만8천원. 문의 1811-9415 _by 에디터 김하얀

CONTOUR STICK

나스 더 멀티플 스킵프팅 스틱 라구나 펄스 베이스 메이크업 시 얼굴의 입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음영과 깊이감을 더해준다. 8g 5만4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임



뱅앤올룹슨 X 이스턴에디션 묵향의 소리 뱅앤올룹슨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스턴에디션과 협업해 선보인 룸 스프레이. 한두 번만 뿌려도 캐머마일과 오렌지 블러섬, 샌들우드가 어우러진 은은한 향이 공간을 채운다. 100ml 13만5천원. 문의 02-518-1380 _by 에디터 신정임



벨레다 슈퍼푸드 크림 건조한 부위에 집중 보습 케어를 선사하는 크림. 바르고 잔 후 확실히 진정되고 매끈해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팔이나 발뒤꿈치 등 건조한 어느 부위에도 사용 가능하다. 75ml 2만5천원대. 문의 080-200-1347 _by 에디터 성정민



센트룸 이문 부스트 데일리 프로텍션 C 하루 1포로 간편하게 면역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믹스베리 맛 파우더 제형의 멀티비타민. 비타민 C와 D, 아연, 셀레늄 등을 함유했으며, 제로 칼로리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30포 2만7천원. 문의 080-530-4100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NEW COMPACT

N°21 X 어뮤즈 듀 파워 비건 쿠션 퓨어 이탈리아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N°21과 국내 뷰티 브랜드 어뮤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쿠션. 소량의 터치로 강력한 커버력과 보습함을 선사해 여름 쿠션으로 제격이다. 15g 3만9천원. 문의 02-3479-6023 _by 에디터 성정민



아쿠아 디 파르마 소르베토 알 리모네 캔들 무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시트러스 아로마틱 캔들. 상큼한 레몬과 향기로운 바질, 은은한 슈거 어코드가 어우러진 청량한 향이 특징이다. 200g 14만5천원. 문의 02-6905-3568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로다움 프롬 씨 크리스탈 화이트 에클라 플러스 커피를 자주 마셔 점점 누렇게 변하는 치아가 고민이었는데, 알로에 베라와 아로마 성분을 함유해 치아 미백에 도움을 준다. 80g 1만5천5백원. 문의 02-6949-3442 _by 에디터 신정임

* 김하얀(40대 지성), 성정민(30대 만장성), 신정임(30대 만장성), 김지현(20대 지성)



1 에트로 칼리스페라 백 에트로가 자유롭고 예술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칼리스페라 백'을 선보인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유연한 실루엣과 섬세한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 특유의 보헤미안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을 담아 완성했다. 문의 02-3213-2494

2 프레드 류슈 프레드 골든 라이트 프레드가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3부작의 마지막 챕터 '무슈 프레드 골든 라이트'를 공개했다. 메종이 추구해온 '빛에 대한 찬사'를 표현한 컬렉션으로, 남프랑스 리비에라의 새벽부터 골든 아워까지 변화하는 빛의 모습을 총 15점의 하이 주얼리 작품으로 표현했다. 문의 02-514-3721

3 MCM 'Domestic Geometry' 캠페인 MCM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2026 F/W 캠페인 'Domestic Geometry'는 영화감독 루시오 카스트로가 연출한 시네마틱 캠페인이다. 'MCM 하우스'를 배경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 속 감정과 관계를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이번 시즌에는 과거 아카 이브에서 영감받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파나 라인과 1970년대 후반 디자인을 재해석한 둥근 탬버린 백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문의 1600-1976

4 티쏘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 티쏘가 대표 다이버 워치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을 리뉴얼해 출시했다. 기존보다 케이스를 44mm로 줄여 착용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60분 눈금을 새긴 단방향 회전 세라믹 베젤을 적용했으며, 다이얼에는 시그니처인 파도 모티프를 더했다. 무브먼트는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파워맷릭 80을 장착했다. 문의 080-500-1853

5 크리스찬 디올 뷰티 캡처 PDRN 샷 디올이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 '디올 캡처'를 리뉴얼해 '캡처 PDRN 샷'을 선보인다. 주름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리바이탈라이징 스킨 부스터 샷으로

Showroom



로, 식물 유래 PDRN과 비타민 C,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담은 복합 포뮬러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의 080-342-9500

6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그라프가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의 헤리티지와 디자인 철학을 녹여낸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다이아몬드의 정교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화이트·옐로·로즈 골드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링크 구조와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체인 링크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2150-2320

7 샤넬 엑스트레 펄스 스프레이 샤넬의 '레 엑스트레 드 샤넬' 라인의 향을 미니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엑스트레 펄스 스프레이'는 11가지 향으로 구성되며, 구매 시 유리 보틀과 인하는 향의 리필 3개를 제공한다. 문의 080-805-9638

8 티파니앤코 이터니티 바이 티파니 에나멜 클레마티스 워치 티파니앤코가 하이 워치메이킹 타임피스 '이터니티 바이 티파니 에나멜 클레마티스 워치'를 공개했다. 20세기 초 뉴욕 티파니 스튜디오의 상징적인 아르누보풍 '클레마티스 램프'에서 영감받아 탄생했으며, 다이얼에는 클레마티스 꽃과 덩굴을 따라 피어난 플로럴 모티프가 조화롭게 펼쳐진다. 지름 36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를 장착했으며,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칼리버 LTM을 탑재했다. 문의 1670-1837

9 키린 '마이 울루(My Wulu)' 캠페인 키린이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 임윤아와 함께한 '마이 울루(My Wulu)'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상징적인 클래식 울루 컬렉션을 중심으로 영원한 인연과 무한한 행운을 표현한 이터니티 컬렉션, 울루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울루울루 컬렉션을 선보였다. 문의 02-3479-1962



10 N32 N32 모션베드, 반안트리 서울 '그랜드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반안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전용 침대 'N32 모션베드'를 정식 도입했다. 5개의 플레이트로 세밀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안전 센서와 스파 안전 가림 천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1899-8182

11 오데마 피게 팟 스타 레이와 완성한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오데마 피게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레이(RAY)와의 협업 2주년을 기념하며 제60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무대를 장식했다. 화전식 팔각형 무대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연출하며 메종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모티프를 담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세계 제작을 넘어 음악과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오데마 피게의 브랜드 철학을 전했다. 문의 02-543-2999

12 유럽연합(EU) 유럽연합 레스토랑 워크 유럽연합이 지난 7월 서울 곳곳의 엄선한 레스토랑, 바, 베이커리 18곳에서 '유럽연합 레스토랑 워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셰프들은 다채로운 유럽산 식재료를 활용해 풍부한 미식 전통을 담은 레시피와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며 유럽 식문화의 가치를 전했다. 문의 <https://enjoy-its-from-europe.campaign.europa.eu/south-korea/ko>



COCO CRUSH NECKLACES AND EARRINGS IN BEIGE GOLD
OR WHITE GOLD, WITH OR WITHOUT DIAMONDS



COCO CRUSH

CHANEL

FINE JEWELRY